

15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96.81	↓ 코스닥	711.61
	(-0.59)		(-6.43)
↑ 금리 (미국 9년)	2.675	↓ 환율 (원·달러)	1461.55
	(+0.029)		(-1.65)



尹,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에 '내란수괴' 혐의 체포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공수처, 6시간만에 영장집행 완료
11시부터 영상녹화조사실서 조사
尹, 체포직전 대국민 메시지 통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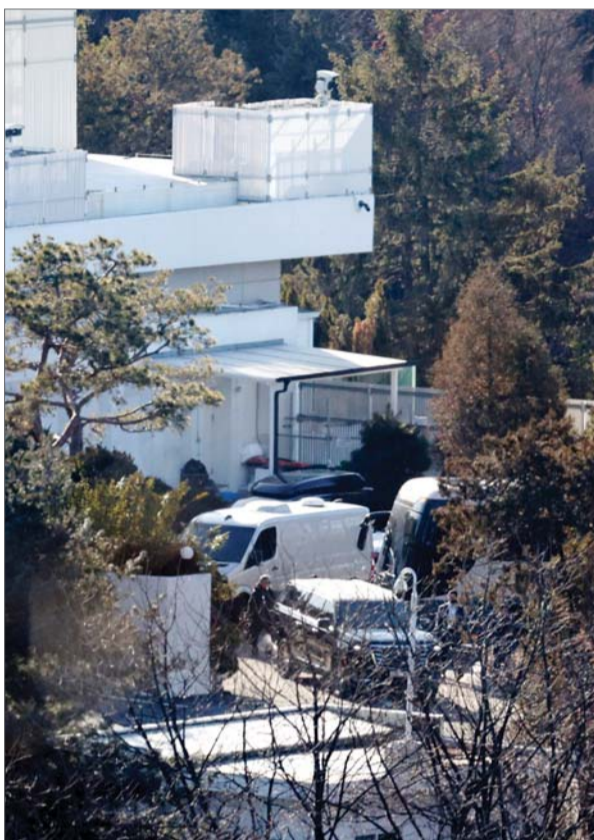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떠나기 직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관련기사 2·3면〉

이날 경찰과 공수처는 오전 4시10분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오전 10시33분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된 이후 12일만이며, 지난해 12월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5일만이다.

이날 오전 5시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관저 앞을 찾았다. 이들은 '불법 체포'라며 강성 보수 시위대와 함께 경찰·공수처 체포팀과 대치했다. 하지만 체포팀은 오전 7시34분쯤 1차 저지선을 뚫었고, 불과 26분만에 대통령 공관으로 이어지는 철문(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이날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자로 체포된 경호처 직원·국회의



(왼쪽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5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나서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원·시위대는 없었다. 관저를 막는 경호처 직원이 없어,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관저에 도착한 수사팀은 윤 대통령과 출석 과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측은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체포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영장 집행 개시 6

시간23분 만이다. 오전 10시52분 과천 공수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청사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기 직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돼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행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향하기 직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체포에 응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

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 수사'로 규정한 만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무장한 군인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총책임자로 지목된 것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취업자 수 5.2만명 감소... 최상목 "쏠 부처 일자리 창출 힘 보태야"

(전년 동월 대비)

국정현안·경제·산업장관회의
고용시장 위축 우려, 정부 적극지원
전기차·이차전지 인센티브 확대
내달부터 바이오 분야 밀착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내 고용시장 위축을 거론하고 모든 정부부처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또 주요 산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전기차 시장 수요가 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4·6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건설업 등 내수회복 지원, 주력 업종 경쟁심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말 직 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도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全) 부처가 일자리 전담 부

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 분 한 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약 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대행은 고용 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반기 중 일자리 등 민생·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 18조 원 수준의 경

기보강 등을 통해 내수 회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자동차산업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의 첫 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차전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을 전년 대비 2조 원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미국의 보편관세 도입,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 축소에 철

저한 대비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정부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가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전문 보육기관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부터 수익 창출까지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월부터 신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후보물질 발굴부터 신약개발까지 집중 지원하기 위한 400억 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를 올해 중 신규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오는 설 연휴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주 중 현장을 방문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 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두달간 사건 배당 중지
▲ 한미일 공중훈련 실시... 미 B-1B 전략폭격기 전개

▲ 이재명, 윤 체포에 "안타까운 일... 민생 집중할 때"
▲ 우 의장, 윤 체포에 "혼란 일단락... 특검법 신속하게 처리할 것"

▲ "과천으로 가자"...尹 대통령 체포에 보수층 고성·오열
▲ 한 총리 "12·3 비상계엄, 잘못... 이런 상황 막지 못해 국민께 죄송"

정국 주도권 野로... 내란·외환일반 특검법 통과에 사활

민주당, 내란특검법 오늘 처리
통과면 수사기간 최대 130일로
조기대선과 겹치면 우위 예상

국민의힘 '계엄특검법' 발의 안해
'尹 체포 부당' 지속적 강조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만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이다. 이에 당분간 여야 간 극한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국 주도권은 야권에 넘어갈 전망이다.

그간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보수진영을 결집시켰던 상황이라,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여론 조사도 일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재확산되면서 여야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조기 대선을 예상하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쉽게 흩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외환일반특검법' 통과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있다. /뉴스시스

행사한 상황이라, 야당은 두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번에는 내란·외환죄를 모두 포함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체포됨에 따라 내란특검법을 예정대로 오는 16일 처리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구체적인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언제든 적극적 논의를 할 수 있다. 처리는 내일(16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정안이 되든, (국민의힘과) 논의가 마무리되든, 아니면 민주당의 단독안이 되든 우리 당은 16일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구속되면 최대 20일 내에는 기소를 해야하므로, 그전에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기간이 최대 130일이므로, 조기대선과 겹치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의 체포로 야권에 정국 주도권이 넘어올 경우,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지지율 회복을 꾀할 분위기다. 특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도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이 주장해온 추가경정예산안(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체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시스

경) 편성도 재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도권을 빼앗긴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계엄특검법'을 발의하며 민주당에 맞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발의할 경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최 권한대행은 이를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중으로 자체안을 발의하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윤 대통령 체포가 부당하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강조할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

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구하고 큰 결실을 내리셨다"며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를 향해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 직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며 "필요하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되짚어 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제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부당·불법적 영장 집행”... 野 “구속, 내란 전모 낱낱히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된 가운데,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구속수사를 통해 내란 전모를 낱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당·불법 영장 집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서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상을 초월할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 벌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 우중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분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조속히 쾌유하길 바란다”며 “시민을 다치게 한 데 대해서 공수처와 국수본에 무거운 법적 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체포, 누구 위한 것인지 묻고싶어
사법부, 불법적인 영장 집행 가담”

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에 촉구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라고 표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법적인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어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공수처·경찰 등) 항의방문 등도 필요해보인다. 바로 움직일 생각

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尹, 구속 수사해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며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소식이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시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尹, 韓 무법천지 만든 중대범죄자
일조한 이들, 국회의원 자격 없어”

박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다.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을 질질 끌며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며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오히려라도 발의하면 밤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 필요”

원내3당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정치권 등판 이후부터 논란을 일삼아온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통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의혹은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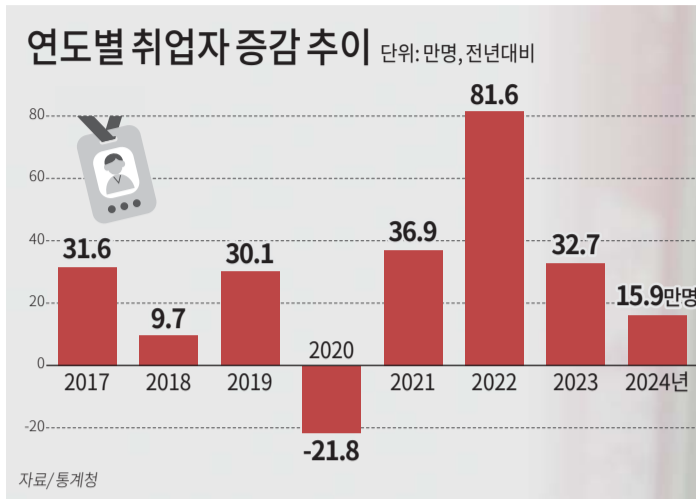
이들은 “김건희는 그야말로 각종 의혹의 종합선물세트”라며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건희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된 상황에서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하거나, 내란사태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에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김건희에 대한 신속한 출국금지와 본격적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고용시장 ‘한파’...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 4년새 ‘최저’

통계청, ‘12월·연간 고용동향’
월간 취업자수 46개월 만에 감소 전환
일용직 근로자 2012년 이후 최대 ↓
20대 12.4만명 ↓, 2020년 이후 최대폭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 4년 사이 가장 작았다. 재작년인 2023년도 증가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월 기준 취업자 수는 46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수개월간 지속 중인 민간소비 부진에 더해 고용시장까지 위축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5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1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취업자 수는 2021년에 기저효과를 보이며 36만9000명 늘었고, 2022년에 엔데믹이 가시화하며 증가폭이 81만6000명에 달했다. 이후 2023



년(+32만7000명)에도 고용 호조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24년 수치는 2023년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령별로는 60세이상에서 26만6000명, 30대에서 9만명, 50대에서 2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에서 12만4000명, 40대에서 8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20대 취업자 감소폭은 2020년(-14만6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다.

지난해 산업별 취업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3000명, 2.9%), 정보통신업(7만2000명, 6.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5000명, 4.8%) 등에서 증가했다. 이에 반해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 -1.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만2000명, -3.6%), 건설업(-4만9000명, -2.3%) 등에서 감소했다. 건설업 감소폭은 2013년

이후 11년 사이 최대에 달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8만3000명(1.1%), 임시근로자는 15만4000명(3.3%) 각각 늘었다. 일용근로자는 12만2000명(-11.7%) 감소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2012년(-12만7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4년에는 도소매, 사업시설,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해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축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0.2%) 줄어들었다. 취업자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 이래 3년10개월 만이다. 월간 취업자 수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 명대의 증가폭을 유지한 바 있다. 이후 10월(+8만3000명)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11월(+12만3000명)에 다시 10만 명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하고 말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영향으로 12월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직접일자리사업이 확대·재개되는 만큼 12월의 일시적 고용부진 요인은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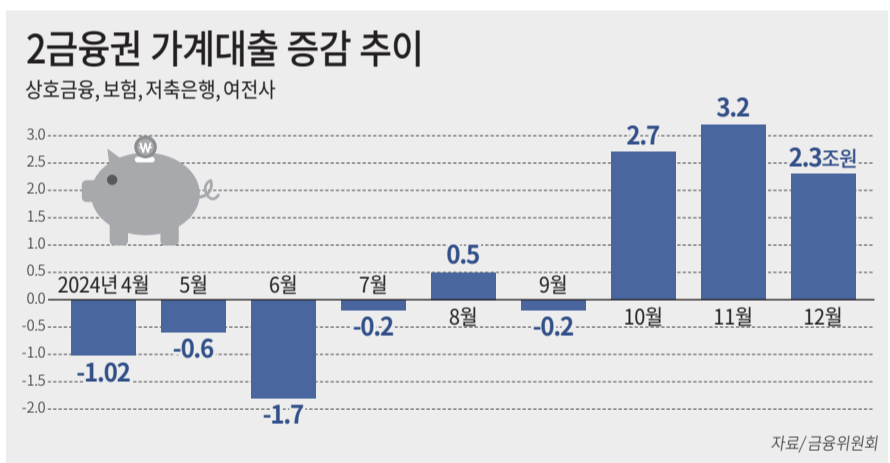
작년 가계대출 42조... 은행권 옥썰더니, 2금융권서 늘었다

금융위-한은, 가계대출·금융시장 동향
2021년 이후 3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
2금융권 ‘풍선효과’로 상승 주도

지난해 가계대출이 4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감소했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57조1000억원 늘며 전년(45조1000억원) 대비 12조원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은 전년 대비 15조5000억원 줄었다.

◆ 12월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세 전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가계



대출 잔액은 1141조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46조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52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기타대출이 5조9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8월 9조2000억원으로 큰폭으로 증가한 뒤 ▲9월 5조6000억원 ▲10월 3조8000억원 ▲11월 1조9000억원 ▲12월 -4000억원

으로 줄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8월 한달 간 8조2000억원이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해 12월 8000억원 늘었다.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지속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월 3만호에서 10월 3만8000호로 증가한 뒤 11월 1만9000호로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계약 이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줄어든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0월과 11월 소폭 증가한 뒤 12월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연말 상여금을 통해 대출을 갚는 이들이 늘면서 감소했다.

◆ 풍선효과 비금융권 가계대출 ↑
은행권에서 감소한 가계대출은 비은행권으로 몰렸다.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을 포함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9월 -2000억원에서 ▲10월 2조7000억원 ▲11월 3조2000억원 ▲12월 2조3000억원 늘었다.

박 차장은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이 줄었지만, 비은행권(2금융권)까지 같이 봐야 한다”며 “2금융권의 경우 신축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집단대출 등이 발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증가액은 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3조2000억원)가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1조5000억원), 보험(5000억원) 순이었다. 상호금융은 9조8000억원 감소했다.

박 차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가 하락으로 전환하고, 거래량도 고점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주택담보대출도 둔화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가계대출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1115@

얼어붙은 경매 시장... 재건축·시세이하 아니면 ‘찬밥’

대출 규제에 안전마진 물건만 인기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물품 수요 집중

주택 매매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경매시장에서도 재건축 단지나 시세보다 감정가가 낮은 물건에만 수요가 몰리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시장 침체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최소한의 ‘안전마진’ 확보가 가능한 물건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상위 10위권에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최근 롯데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



지난해 11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전보다 1.8% 늘었다. 특히 서울은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5146호로 전월 대비 690호(1.0%) 감소했다. /뉴시스

정한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전용면적 41㎡ 경매 2차 기일에는 10명의 응찰자가 몰리며 최저 입찰가 8억1040만원보

다 높은 11억5237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13.8%다.

양천구 목동현대1차 전용 60㎡는 지난달 12일 열린 경매에 13명이 몰리며 감정가(12억원)보다 높은 12억5000만원에 낙찰됐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송파구 장미아파트 전용 197㎡도 감정가(34억2000만원)보다 높은 35억1600만원에 낙찰되면서 낙찰가율 102.8%를 기록했다. 향후 재건축을 거쳐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요자들이 몰린 것이다.

과거 경매시장에 나오면 응찰자가 대거 몰렸던 강남 지역에서는 유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보험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남에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게 나온 물건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경매4계에서는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120㎡에 대한 2차 경매가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경매는 실거래가와 비슷한 32억8000만원에 진행됐다. 잠실엘스 전용 120㎡는 지난해 11월 33억4000만원, 10월 32억3200만원에 실거래돼 감정가와 별 차이가 없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 120㎡도 지난달 5일 감정가 38억9000만원에 1차 경매가 진행됐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치아이파크 전용 120㎡는 지난해 12월 40억73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감정가가 실거래가보다 다소 낮았지만 유찰됐다. 이 아파트는 오는 16일 감정가보다 20% 낮은 31억1200만원에 2차 경매가 진행된다.

경기·인천에서도 시세차익이 확실한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경기 용인 수지구 만현마을 엘지하이 전용 110㎡ 경매에서 최저 입찰가격이 4억5500만원으로 떨어지자 응찰자 12명이 몰리면서 해당 면적 최근 실거래가(6억9000만원)보다 낮은 6억7279만원에 낙찰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 전용 60㎡는 최근 실거래가인 5억8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은 4억5100만원에 감정가가 책정되면서 응찰자가 무려 27명이나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강도 대출 규제와 정국 불확실성 여파로 12월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가 다섯 달째 하락하면서 보험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24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심리는 전월 대비 2.1포인트(p) 하락한 107.7을 기록했다. /뉴시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오세훈, '토허제 확대 추진' 낙달 만에... "해지 적극 검토"

(서울시장)

‘압여목성’, ‘잠삼대청’ 만료 앞둔 토허제, 시 면적 10% 넘게 차지 본래 용도 없어... 유명무실 지적 서울시, 규제풀기로 분위기 반전

서울 주요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나친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당장 오는 4월에 ‘압·여·목·성(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1·2가)’의 지정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으며,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지정기간도 올해 6월까지로 재지정 없이 해제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서울시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5.25㎢다. 시 면적(605.24㎢)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토허제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14일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토허제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되며 임대를 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하기 힘들다.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된다.

토허제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서울에선 용산정비청 개발사업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은 모두 서울시장의 지정했다.

토허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투기 방지 등 당초 제도의 취지보다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용도로 쓰이면서

다. 노후 주택 비중이 높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데다 매년 재지정으로 기간이 늘면서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커졌다.

토허제 구역 중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공공개발 후보지 등을 제외하고 절반 이상이 주요 재건축 단지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모아타운 등이다.

특히 ‘잠·삼·대·청’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등대로 복합개발사업을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이후 매년 재지정으로 5년 가까이 묶여있고, 주요 재건축단지라며 지정된 ‘압·여·목·성’ 역시 지난 2021년 4월 이후 재지정이 반복되고 있다.

토허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토허제로 묶인 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신고가가 속출하고, 불허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분위기가 바뀐 것은 올해 들어 서울시가 대대적인 규제 풀기에 나서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일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철폐 요청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 토허제 확대를 내세웠던 것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8·8대책’ 다음 날 브리핑을 갖고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돼 추가 조치가 필요할 때가 되면 토허제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 B’들이 준비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 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산업부, 전기차 보조금·이차전지 정책금융 확대 지원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청년 생애 첫 차 보조금도 추가 지원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 7.9兆 투입

정부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우려로 성장이 둔화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친환경차 성장 둔화로 영향을 받는 이차전지업계에도 7조9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친환경차 캐즘 대응을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제조사할인 인센티브)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만 19세~34세)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해 수요증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 5249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 최대 580만원, 제조사 할인 600만원 가정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조사할인 인센티브 140만원을 추가로 할인받아, 최종 구매가격은 452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장도 가격 4600만원보다 88만원 낮은 수준이다. 또 청년 첫차 구매시 116만원이 추가 할인된 4406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별소비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혀 소

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시 할증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기차·배터리 특별무상점검,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작년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선 지속 점검하고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

소화를 위한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작년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원을 지원하고, 작년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 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세액공제는 30~50%, 투자세액공제는 15~3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1월 중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

전 편의성을 높인다. 2030년까지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아울러 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수소버스 플랫폼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한다.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아울러,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금융위, 대형 금융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전가 봉쇄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본격화 시범운영 참여사 대상 컨설팅 등 진행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도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두는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봉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책무구조도는 은행과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도 책무구조

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법정 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하기 어려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한다”고 말했다.

시범운영 대상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자산 20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7월 2일까지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 자체 적발·시정된 경우에는 관련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지연 기자 yul115@

Vivid
**STRAWBERRY
 MOMENT**



하와이안 베리볼
 Hawaiian Berry Bowl
7.4 ICE ONLY
 *스푼이 함께 제공됩니다

생딸기주스
 Real Strawberry Juice
6.9 ICE ONLY

생딸기&생바나나 라떼
 Real Strawberry & Banana Latte
6.9 ICE ONLY

ANGELINUS

생보사, 제3보험 눈독... “데이터 활용으로 경쟁력 높여야”

손보 독점시장에 생보업계 도전장
질병·상해 등 신상품 출시 잇따라

보험개발원 “데이터 기반 개발 필수
관련 조직·인력 전략적 투자해야”

생명보험사들이 제3보험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생보업계의 질병·간병 등 제3보험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가격·상품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연초부터 건강보험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사망보장 수요 감소에 따라 질병·간병 중심의 제3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다.

생보업계는 지난 1월 1일 ABL생명을 시작으로 한화생명과 DB생명이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ABL생명은 유병자 특화 건강종합보험 2종을 출시했고 한화생명은 뇌·심장질환 보장범위를



Chat GPT가 생성한 생보사 제3보험 시장 영향력 확대 이미지.

확대한 건강보험을 선보였다. DB생명은 업계 최초로 주요 7대 질병을 보장하면서 보장받는 횟수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회계제도가 바뀌면서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을 중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올해도 전사적

으로 건강보험 판매를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보업계가 연초부터 건강보험 출시에 나선 것은 제3보험 시장 영향력 확보의 일환이다. 제3보험은 질병·상해·암 등 생·손보사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본래 제3보험은 손해보험사의 영역으로 평가 받는다. 손보사들의 제3보험 시장 점유율은 약 70% 수준이다. 최근엔 보험 수요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생·손보 간의 제3보험 시장 확대 및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제3보험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생명보험 데이터 관리체계 개편으로 향후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 분석이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생명보험의 르네상스, 데이터로 다시 시작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보 산업은 데이터에서 신규 성장동력을 찾고자 30여년 만에 데이터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결정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생명보험 데이터 관리체계 개편으로 향후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명보험 산업이 제3보험 시장

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상품개발과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개편에 따른 활용방안으로는 ▲가격경쟁력 제고 ▲상품경쟁력 강화 ▲위험관리 등이 꼽힌다. 담보별 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가격을 산출함으로써 제3보험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제고한다.

건강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준별 위험 세분화를 통해 상품 판매 경쟁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손해율 분석 결과를 상품·마케팅전략 수립 시 활용해 위험관리 효과를 얻는다.

보험개발원은 “세분화된 데이터 집적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생보사는 이를 활용해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생산 조직부터 활용 조직까지 전사적인 차원에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oeul.co.kr

“대부업 명칭 변경, 불법사금융 척결이 먼저”

우수업체 ‘생활금융’ 사용 가능해져
명칭 변경 골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불법사금융 척결 없인 무의미 지적

앞으로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생활금융’이란 명칭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대부업권은 불법사금융과 선을 긋기 위해 명칭 변경을 주장했다. 명칭 변경이 대부업체 반대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한편 시장 재정비가 우선이란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수 대부업체에게 ‘생활금융’이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우수 대부업체를 지정하고 명칭 사용 허가와 함께 대부업 요건을 강화 하겠다 단정이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부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임기를 시작한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취임사에서 대부업권 명칭 변경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대부업이 ‘불법사금융’이란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계 또한 부정적 인식을 두고 시장 위축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대부업자 승인 요건 상향 조정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병행하면 명칭 변경에 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는 71만 4000명이다. 연간 1만 4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 규모는 3000억원 줄어든 12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연 20%) 등 대부업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명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고 본다”라며 “명칭과 함께 불법사금융과 확실하게 구분 짓는 수단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부업권이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권과 온도차는 뚜렷하다. 지난해 11월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주요 대부업체 대표와 금융당국,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당 자리에서 업권 활성화 방안과 함께 대부업 명칭 변경을 논의했지만, 명칭 변경안을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업계는 명칭 변경에 속도를 높이고 싶었던 반면 금융당국은 불법사

금융 척결을 선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불법사금융 업자가 똑같은 간판을 걸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 우려다. 금융권 또한 불법사금융 척결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대부업계가 쇄신을 위해 적잖은 공을 들였지만 불법사금융이란 인식은 여전히 상존한다. 지난해 대부업체 20곳은 2436억원 규모의 채권소각을 단행했다.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자주 1만 6996명의 채무 부담을 완화했다.

지난해 대부금융협회가 10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상당수의 차주는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혼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체에 차입을 허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사금융 때문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명칭 변경 이후에도 불법사금융이 이뤄진다면 유의미한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관망세 심화

12월 아파트값 0.09% 상승 그쳐
SK북한산시티, 3000만원 하락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달보다 축소됐다. 지난해 8월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내리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 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07%로 전달(0.01%) 대비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서울(0.20%→0.08%) 역시 11월(0.20%)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된 수치다. 8월(0.83%)에 2019년 12월(0.8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상승폭이 줄어 들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북에서 용산구(0.22%)는 도원·신계동 중소형 규모, 중구(0.15%)는 신당·중림동, 마포구(0.15%)는 아현·염리동 주요단지, 광진구(0.14%)는 정주여건 양호한 자양·광장동, 종로구(0.13%)는 무악동·명륜2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에서 구로구(-0.09%)는 고척·

구로동 구축 단지, 관악구(-0.06%)는 봉천·신림동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강남구(0.24%)는 개포·논현동 주요단지, 서초구(0.21%)는 잠원·반포동 재건축 추진단지, 영등포구(0.16%)는 당산·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12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달 대비 0.09% 오르는 것에 그쳤다. 2018년 9월(1.84%)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한 8월(1.27%), 9월(0.79%)보다 상승률이 크게 내렸다. 전달인 11월(0.26%)과 비교해도 상승 폭은 반토막이 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는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6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전달 매매가격(6억 6000만원) 대비 3000만원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내 정주여건 양호 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는 관측되고 있다”며 “다만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시장 관망 추이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동백전 고객 전용 비상금 대출 ‘동백론’

부산은행, 고객 요청 즉시 대출지원
최저 연 5.47%, 최대 300만원까지

BNK부산은행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상금 동백론’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상금 동백론’은 부산지역화폐동백전 앱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말 사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고객을 선정하고, 고객 요청 시 즉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고객도 동백전을 이용 중이라면 긴급소액 대출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이며, 동백전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저 연 5.47%(15일 기준) 수준까지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상환방식은 일시상환, 할부상환, 마이너스대출 등의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상환방식에 따라 최대 6개월부터 최장 3년까지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할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상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 또는 전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하나은행, 최고 年 7% ‘달달 하나 적금’

급여이체 고객에 10만좌 한정 판매

하나은행이 새해를 맞아 급여이체 손님에 대상으로 달마다 혜택을 드리는 ‘달달 하나 적금’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달달 하나 적금은 하나은행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매달 이벤트를 통한 풍성한 혜택과 최고 연 7%

금리를 제공하는 ‘하나원큐’ 전용 적금 상품이다. 오는 6월말까지 10만좌 한정 판매 예정인 달달 하나 적금의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5.0%를 더해 최고 연 7.0%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연 1.0%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

▲첫거래 감소 금리 연 1.5% ▲달달 하나 금리 연 1.0~2.0%이다.

최근 1년간 하나은행에서 예·적금 가입 이력이 없는 손님들에게는 ‘첫거래 감소’ 금리가 제공되며, 매월 1회 이벤트에 참여하면 랜덤 방식으로 제공하는 ‘달달 하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나은행을 주거래로 이용하는 손님들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조선업계, 인도 상선시장 주목

정부·기업 등 파트너십 '물꼬'

인도, 정부차원 조선업 육성
2033년 81억달러 시장 전망
업계 "다양한 협력방안 모색"

국내 조선업계가 인도의 거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조선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며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가 대규모 선박 발주와 조선업 육성을 계획 중인 만큼, 한국 조선사들은 파트너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조선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9000만달러에서 오는 2033년에는 81억2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인도가 1000척 이상의 신규 선박 발주를 계획 중이라 전했다. 현재 1500척 가량의 선대를 보유한 인도는 향후 25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인도 현지 조선소는 현재 28곳에 불과해 신규 상선 1000척 확보를 위해서는 건조 능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또한 인도는 전체 무역 물량의 약

95%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으나 자국 조선업이 취약한 상태다.

이로 인해 해외 선박을 빌리는 데만 연간 약 110조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등을 직접 건조할 수 있어야 이러한 비용 저감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인도 정부 또한 조선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세계 조선 시장에서 점유율 1% 미만인 인도의 조선업 역량을 오는 2047년까지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특히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조선 3사(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사업장을 방문하며 기술 협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도 전해졌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했다. 각 조선사에서 선박 건조 능력과 조선소 운영체계, 친환경 선박 기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 한국을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아울러 인도 정부의 한국 조선사 방

문에 이어, 한화오션 관계자들이 인도 현지 조선소를 찾은 점이 확인되며 협력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도 힌두스탄조선소(HSL)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한화오션 대표단이 지난 13일 자사 조선소를 방문했다"며 "이번 방문은 선박 건조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HSL은 인도 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에 위치한 조선소다.

이에 업계에서는 두 국가가 사업 협력의 기회를 찾기 위해 상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일각에서는 인도와 중국 간 오랜 국경 분쟁의 영향으로 반중 감정이 한국과 인도 간 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선박 운영 척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한국 조선사 사업장을 방문해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며 "국내 조선사들도 인도 시장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차, '디 올 뉴 팔리세이드' 출시

현대차는 15일 프리미엄 플래그십 대형 SUV '디 올 뉴 팔리세이드'를 출시했다. 이번에 현대차가 출시한 '디 올 뉴 팔리세이드'는 모델 하이브리드(HEV)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9인승 모델을 출시하는 등 기존 패밀리카를 선호하는 고객층을 넘어 다양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략한다. 론칭 행사에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이동석 사장과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무대에 올라 팔리세이드를 함께 소개하며 완벽한 품질을 향한 의지를 내비쳤다. /현대차

ESG연구소 "고려아연 이사회 유지해야"

집중투표제 등 찬성 권고

한국ESG연구소가 고려아연의 이사회 구도를 현재 상태대로 유지함으로써 그동안 경영진이 추진해온 각종 사업과 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15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한국ESG연구소는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등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제안한 모든 안건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찬성을 권고했다.

한국ESG연구소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임시주주총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 ▲집행임원제도 도입 ▲주식액면변환 등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MBK·영풍이 반대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안건에 대해, 모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해 현 고려아연 경영진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먼저 '이사 수 상한'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찬성하며 현경영진 및 이사회 구도가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ESG연구소는 "이사회 수가 적정수로 구성돼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장기적 주주 가치 제고에 부합한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관변경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사회 몸집이 비대해지는 게 주주 가치 제고에 반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핵심 안건 중 하나인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찬성을 권고했다. 한국ESG연구소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은 일반 주주에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설명에선 현경영진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ESG연구소는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4명을 찬성하고, 영풍·MBK 측 3명만 이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한국ESG 연구소는 "고려아연 경영진의 그동안의 경영실적을 고려하고 기존에 수립된 주주친화 정책을 경영안정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예리하게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영풍·MBK 측 이사 후보들을 일부 선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한진그룹, 대한항공-한진칼-아시아나 통합 임원 인사

우기홍·류경표 부회장 승진... 메가 캐리어 채비

우 부회장 등 대한항공 18명 승진
송보영 부사장, 아시아나 대표 내정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첫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대한항공 임원진을 아시아나항공에 전면 배치하며 구조적 통합을 넘어 인적 통합에 나섰다.

한진그룹은 16일부로 대한항공과 한진칼, 아시아나항공의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은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대한항공의 승진 인사는 우 부회장을 비롯해 총 18명 규모다. 대한항공의 신임 상무로는 12명이 승진했다.

아시아나항공도 15명 규모의 인사를 실시했다. 신임 대표이사에 송보영 부사장이 승진 내정됐으며, 7명이 신임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 부회장



송보영
아시아나 대표이사 내정자

상무로 선임됐다.

송 신임 부사장은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 전무 출신이다. 1988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한국지역본부 여객팀장, 모스크바지점장, 미주지역본부장 등을 거쳤다. 항공업과 여객 영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임원인사를 통해 통합 항공사로 함께 새

롭게 도약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안전과 서비스라는 근간을 토대로, 통합 항공사로서의 성공적인 출범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항공업계 리더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두산에너지빌-국방과학연구소, 항공엔진 개발 맞손

'연소기·시험리그 제작' 과제 수행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항공 엔진 개발에 나선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연소기 및 시험리그 제작' 과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미래도전 국방기술'로 개발 중인 고온화 연소기 개발의 일환인 고온화 연소기 시제작 및 리그 시험을 지원하게 된다. 과제는 오는 2027년 4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항공엔진 연소기는 개발 과정에서

많은 리그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통상 엔진체계 개발보다 선행해 제작 및 시험이 이뤄진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 과제를 통해 최적의 연소기를 개발, 항공기를 운영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연소기 리그 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현대차그룹, 전기차 고객관리 강화

안심 점검 서비스 통합 운영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시행한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차량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차량 기본 점검과 전기차 안심 점검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심 점검 서비스 통합 운영으로 고객들은 각각의 점검 서비스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차량 전반 및 전기차 핵심 부품을 점검할 수 있다. 서비스 항목도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 및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들을 선별하여 추가 강화했다. 서비스 제공 기간도 기존(8년)보다 2년 늘어나 10년간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CCS(커넥티드 카 서비스)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차·기아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고객 불안을 적극 고려해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상 차종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가운데 출고 후 10년 이내 차량(사고 시점 기준)이다.

다만,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천재지변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 등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보험 보상 한도 이내 손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양성운 기자

美 '틱톡 금지법'에 난민 대이동... 메타 아닌 中 플랫폼 급부상

글로벌 플랫폼 경쟁 새 국면

오는 19일 틱톡 금지법 발효
대법원 가처분 소송 진행 중

중국 서버컬처 중심 콘텐츠
샤오홍수·레몬8으로 몰려

미국의 '틱톡(TikTok)' 퇴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틱톡의 대안을 찾는 '틱톡 난민'들이 대이동에 나섰다. 메타(META)의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중국발(發) 앱으로 이동하며 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오는 19일 바이트댄스(ByteDance)와 틱톡은 미국 의회가 제시한 틱톡 매각 시한 360일을 맞이할 예정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4월 틱톡 내 설치된 백도어(Back Door·비인가 시스템 접근을 하는 악성코드)가 미국 시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 탈취하고 이를 중국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스파이풍선(Spyballoon)'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내 기업에 틱톡 소유권을 매각할 것을 강제했다. 틱톡과 중국 정부 측은 이를 대(對)중국 견제이자 우량 기업 탈취 시도라고 반박했다.



오는 19일 미국 정부가 틱톡(TikTok)의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박탈하는 '틱톡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틱톡의 접속 불가를 우려한 이용자들은 샤오홍수, 레몬8 등 중국 발 숏폼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블룸버그 통신은 13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틱톡을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틱톡 금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미국 차기 행정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관해 바이트댄스 측은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지난 4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 바이트댄스가 낸 틱톡

금지법 시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계류 중이다. 현재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추정 가치는 2680억 달러, 틱톡 사업은 300~5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틱톡을 둘러싼 정치적 알력다툼 속에서 틱톡을 이용 중이던 틱톡 이용자들은 대대적인 이동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틱톡 매각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서 틱톡에 관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

른다"라며 "취임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우호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룹에도 틱톡 이용자들은 미국 내 틱톡 접속이 어려워질 경우 이미 축적한 데이터 등에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여러 플랫폼에 자리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틱톡 이용자들이 특히 주목한 앱은 샤오홍수(XHS)의 '레드노트'와 바이트댄스의 앱 '레몬8'이다. 레드노트는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수의 국제 버전으로 지난 13일 오후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SNS 부문 8위를 차지했다. 미국 앱스토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다운로드된 앱은 레몬8이었다.

미국 이용자들은 레드노트 대신 샤오홍수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13일 샤오홍수에서 틱톡 난민들이 자신의 샤오홍수 가입을 알리며 사용한 해시태그 '#tiktokrefugee'는 수만 개의 게시글을 쏟아냈다.

틱톡금지법으로 최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던 메타의 인스타그램 등은 다소 정체됐다. 샤오홍수와 레몬8이 틱톡과 거의 유사한 서버컬처 문화와 콘텐츠를 가진 것에 반해 인스타그램은 미국 내 주요 틱톡 이용자들의 문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이용자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마케팅 업계 관계자는 "틱톡의 이용자들은 인스타그램 릴스 이용자들이 공유하는 패션과 쇼핑 문화보다는 다소서브컬처화(化)한 문화를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며 "오히려 유튜브 숏츠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중국 앱으로 이동했다는 데에 매우 놀랐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oul.co.kr

삼성, 아트TV '더 프레임'으로 호텔 시장 공략

투숙객 맞춤형 갤러리 경험 선사
구글 캐스트·애플 에어플레이 지원
슬림핏 디자인·무선 콘텐츠 공유

삼성전자가 TV를 끄면 예술 작품이 되는 '더 프레임(The Frame)' TV로 호텔 시장을 공략한다.

삼성전자는 '더 프레임(모델명 HL03F)'에 호텔 환경에 맞춰 주요 특징과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했다고 15일 밝혔다. '더 프레임'을 호텔 TV 라인업까지 확장함으로써 투숙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다.

더 프레임은 전원이 꺼져 있을 때에도 그림·사진 등의 예술 작품을 보여주



삼성전자 호텔 TV 더 프레임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삼성전자

는 '아트 모드'를 제공한다.

또 액자 형식의 베젤과 슬림핏 벽걸이 디자인도 특징이다. 조도 환경에 따

라 콘텐츠의 밝기 및 컬러 톤을 자동으로 조정해 일상 공간을 갤러리처럼 연출해 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호텔 관리자는 '아트 모드'를 활용해 머무는 공간의 분위기를 원하는 대로 맞춤 조성할 수 있다. 삼성전자 더 프레임은 지난해 세계 최대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Art Basel)'에 첫 공식 디스플레이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한층 더 편리한 투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형 호텔 TV 전 모델에 무선 콘텐츠 공유 기술인 '구글 캐스트'와 '애플 에어플레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호텔 투숙객은 객실 TV 화면의 QR 코드를 통해 보유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콘텐츠를 TV 화면에서 연속성 있게 즐길 수 있다.

데이원컴퍼니

공모가 1만3000원 확정

성인 교육콘텐츠 기업 데이원컴퍼니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를 1만 3000원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요예측은 총 510개 기관이 참여해 최종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 금액은 177억원, 상장 시가총액은 약 1769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가는 2만2000원에서 2만 6700원 사이의 희망 범위에 비해 40% 이상 하향 조정됐다. 공모가는 투자자들이 제시한 가격과 확약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친화적인 가격으로 결정됐다.

/이혜민 기자

LG, 최신 스마트 TV로 클라우드 게임 강화 KT "멤버십으로 건강 챙겨요"

웹OS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 추가

LG전자가 스마트 TV에서 즐길 수 있는 게이밍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다.

LG전자는 독자 스마트 TV 플랫폼 '웹OS(webOS)'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엑스박스 게임 패스'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게임기(콘솔)를 구매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연결된 TV 등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구독 서비스다. 이번 협업으로 LG전자는 웹OS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 서비스를 추가해 LG 스마트 TV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엑스박스 게임패스는



G전자가 엑스박스와 독자 스마트 TV 플랫폼 'webOS'에서 수백 개의 게임을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사진은 LG webOS에 엑스박스 앱을 포함한 다양한 게임 앱이 탑재된 모습. /LG전자

국내를 포함해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신 LG 스마트 TV에 곧 탑재한다.

/구남영 기자

건강 관련 브랜드 등 18종 혜택 선택

KT는 이달 멤버십 혜택을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KT는 새해 첫 프로모션으로 쇼핑과 음식 등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준비했다. 특히 2030세대의 '헬시플레이저', '저속노화' 트렌드를 반영해 건강 관련 브랜드를 포함한 18종의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원하는 제휴사 혜택을 골라 사용하는 이달의 '달달초이스'는 ▲파리바게뜨 4000원 할인 ▲배달의민족x호식이 두마리치킨 6000원 할인 ▲메가MGC 커피아메리카노 1000원 할인쿠폰 ▲팀홀튼 아메리카노M 무료 ▲CJ더마켓

50% 할인 ▲샐러디 3500원 할인 ▲웨이크쉐 프라이+소다S 무료 ▲롯데시네마 6000원 영화예매권 중 원하는 혜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여러 제휴 혜택을 중복해 사용할 수 있는 '달달스페셜'은 ▲오브 1만5000원 할인 ▲청소연구소 할인 ▲아모레몰 기프트카드 ▲크룩스 1만5000원 할인 ▲아고다 최대 10% 할인 ▲신세계면세점 제휴 캐시 및 쇼핑 지원금 ▲부산엑스더스카이 본인 및 동반 2인 40% 할인 ▲윈스토어 게임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달달찬스'에서는 스타벅스 캠페인 머그와 롯데시네마 가족 관람권 4매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남영 기자

폭스바겐그룹

지난해 903만대 판매

폭스바겐그룹은 지난 2024년에 총 903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년 대비 2.3% 줄어든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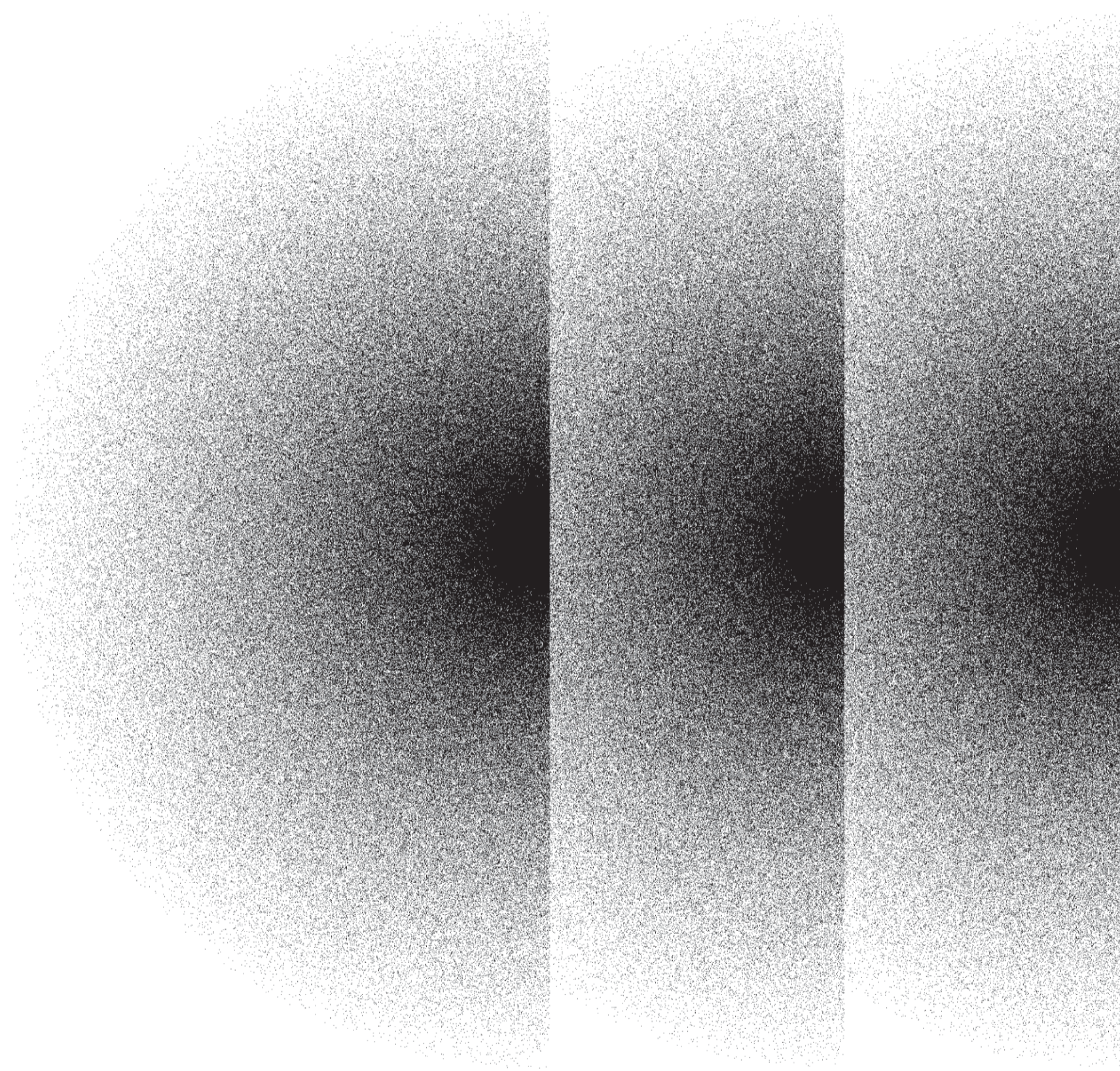
북미(6%)와 남미(15%) 시장의 성장이 유럽(-0.1%), 중국(-10%)의 판매량 감소를 상쇄했다.

전기차는 74만5000대를 판매했으며 점유율은 8.3%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8% 늘어난 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 30%의 감소율을 보였다. 4분기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은 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이 18% 증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

A Piece of

한 조각의 개인이 모여 연출하는 다양각색의 세계



Department of Fine Arts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group exhibition
김수영, 송다현, 양윤빈, 양지혜,
오병완, 이강산, 이승인, 이지수

2025
1.15
—
2.3

갤러리아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문의 02.6743.3370
관람시간 11:00 ~ 19:00 (전시 마지막 날 12:00 마감 / 매주 일, 월요일 정기휴무)

주최 Gallery 아람 후원 아라메 동성제약주식회사 신안개발

‘밸류업 수혜’ 증권사?... 6곳 중 5곳은 공시 이후 주가하락

키움증권, 3.89%↓... 최대 하락폭
증시 펀더멘털 부진에 전반적 쇠퇴
DB금융투자, 안내공시 후 10.68%↑

금융지주를 제외하고 올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증권사 6곳 중 5곳의 주가가 공시 이후 하락했다. 당초 증권주는 저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으로 꼽히면서 밸류업 수혜주로 분류됐지만 주가는 부진했다. 상장사 중 가장 최초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키움증권의 하락폭이 가장 크며, 중소형사 중 선두로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DB금융투자가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해 5월 28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를 발표한 이후 이달 14일까지 주가가 3.89% 떨어졌다.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증권사 중 공시 이후 주가 하락폭이 가장 크다.

키움증권의 밸류업 자율공시는 앞서 3월에 발표했던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비교해 구체화되거나 보완된 부분이 거

〈밸류업 공시 참여 증권사 주가 현황〉

증권사	밸류업 공시 유형	공시 날짜	주가 등락률 (각사 공시일부터 1월 13일까지)
키움증권	자율공시	2024-05-28	-3.89%
미래에셋증권	자율공시	2024-08-22	-2.92%
DB금융투자	안내공시	2024-08-30	10.68%
DB금융투자	자율공시	2024-09-05	7.61%
NH투자증권	안내공시	2024-08-30	-1.83%
NH투자증권	자율공시	2024-12-19	-3.32%
유안타증권	자율공시	2024-12-10	-0.19%
현대차증권	안내공시	2024-12-24	-3.94%

/한국거래소

의 없다는 ‘졸속 공시’ 지적을 받았었다. 실제로 자율공시 다음날부터 3거래일 동안 6.35% 올랐지만, 이후 12거래일만에 공시 날짜 증가였던 12만5800원을 밑돌았다. 최근 밸류업 2차 계획을 공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공시 시점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4일에는 현대차증권이 밸류업 안내공시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6일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주들의 불만을

샀던 만큼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현대차증권의 주가는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들렸던 11월 26일부터 밸류업 공시를 냈던 12월 24일까지 12.96% 하락했다.

NH투자증권도 지난해 12월 19일 밸류업 자율계획을 공시한 후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 2024년 8월 30일 안내공시 이후 자율공시 전까지는 주가가 2.12% 상승했지만, 자율공시 이후 14일까지 3.32% 떨어졌다.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당 배당금 최저 한도를 책정한 부분이 투자자들의 아쉬움을 산 것으로 풀이된다. NH투자증권은 밸류업 공시에서 기본배당금 500원을 제시했는데, 2023년에는 800원, 2022년에는 700원이었다. 주주환원책으로 제시된 최소배당 기준이 오히려 낮은 것이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기본배당 500원의 최소 배당수익을 보장하며, 사업성과를 고려한 추가 배당으로 업계 최고의 주주환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자본효율 최적화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국내 증시 상승 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워낙 증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안 좋았다 보니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 같다”며 “밸류업 공시, 나아가 자율공시와 안내공시 여부로 인해 주가가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한 증권사도 있다. DB금융투자는 중소형사 중 최

초 밸류업 공시 기업으로 밸류업 안내공시 이후 14일까지 10.68% 올랐다. 상 상인증권, SK증권 등 중소형사들이 실적 부진과 함께 주가가 급락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DB금융투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2023년 1.3%에 머물던 별도 자기자본이익률(ROE)을 2024년 5.7%, 2027년 10.3%까지 확대한다는 전략과 함께 별도 주주환원율은 2024년부터 바로 40%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주환원에는 자사주 매입이 포함돼 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상고하저 패턴에 따라 하반기 실적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별도 주주환원율은 40%, 배당성향은 31%로 예상된다. 이에 기반한 2024년 예상 배당수익률과 총 주주환원 수익률은 각각 5.6%, 6.8%”라며 “주주가치 중심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과 적정 주주환원 규모 확보,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에서 밸류업 관련 스토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신인·월드투어 예고’에 들쭉이는 엔터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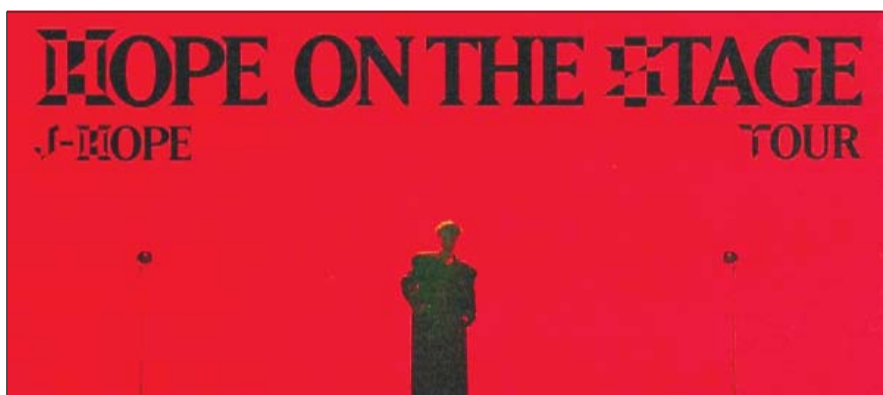
하이브, 에스엠, JYP, 와이지엔터
연초 대비 평균 10.77% 주가 올라
신인 데뷔, 제이홉 월드투어 등 예정

새해 들어 국내 주요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의 주가가 상승세에 올랐다. 신인 아티스트들 데뷔와 인기 그룹의 컴백 예고에 투심이 몰리는 모습이다. 이에 증권사들도 향후 엔터주의 주가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15일 2511.92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한때 2520선까지 올랐지만 2,496.81로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보다 0.59포인트(-0.02%) 내린 수치다.

다만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4사의 주가는 모두 상승했다. ▲하이브 22만 2000원(+1.14%) ▲에스엠 7만 7300원(+0.39%) ▲JYP엔터테인먼트 7만 6000원(+0.26%) ▲와이지엔터테인먼트 4만 9050원(+0.20%) 등으로 주가가 소폭 올랐다. 이날 기준 이들 네 개 엔터기업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평균 10.77%를 기록 중이며, 지난해 1월 상장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POP포커스’ 상장지수펀드(ETF)도 3개월 전보다 27.94%나 오른 수익률을 달성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준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엔터주는 연초 상승세를 지켜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은 ‘HOPE ON THE STAGE’를 통해 서울, 브루클린, 시카고, 멕시코 시티, 샌안토니오, 오클랜드 등 총 15개 도시에서 31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빅히트뮤직

낸 셈이다.

연초 엔터주 전반에 훈풍이 분 이유는 주요 기획사 중심으로 오래 준비해 온 신인 아티스트가 대중에게 공개됐기 때문이다. JYP엔터가 선보이는 7인조 보이그룹 ‘킵플립’이 오는 20일 데뷔를 앞두고 있다. 지난 13일 미래에셋증권은 JYP엔터에 대해 올해 실적 증대가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2.5% 상향하기도 했다. 에스엠도 8인조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Heats2Hearts)를 다음달 24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하이브 산하 ‘빅히트 뮤직’ 소속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 월드투어 일정도 공개됐으며, 와이지엔터의 베이비몬스터 역시 올해 데뷔 첫 월드투어를 앞두고 있어 주가 부양에 기대

감을 모으고 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025~2026년 BTS 월드 투어는 60회차 360만 명의 모객 규모가 예상된다”며 “BTS 멤버 제이홉의 상반기 월드 투어의 총매출은 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PER 27배인 하이브 주가는 38배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규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엔터 산업을 대표하는 4개 엔터사의 12개월 선형 주가 수익비율은 24.5배”라면서 “이는 코스피의 시가총액 가중평균 주가수익비율인 12.7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높은 밸류에이션은 대체로 투자자의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카카오페이증권, 종합계좌 수 700만개 달성

연금저축, 2개월 만에 10만개 기록

카카오페이증권의 누적 종합계좌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700만개를 돌파했다.

15일 카카오페이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시된 연금저축 서비스는 출시 2개월 만에 10만개 계좌를 달성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2020년 2월 종합계좌를 처음 선보인 바 있다. 카카오페이증권 측은 출시 당시 간단한 계좌 개설 절차와 소액 펀드 투자 서비스인 ‘동전 모으기’를 내세우며 빠르게 초기 사용자를 확보했고, 2023년 3월부터는 연 5%(세전) 예탁금이용료 혜택으로 계좌 개설 수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종합계좌 수는 2023년 1월 560만개, 작년 1월 620만개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 12월에는 700만개를 넘어섰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종합계좌는 주식,

/허정윤 기자

펀드, 연금 등 카카오페이증권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향후 상품 라인업 확대에 따라 종합계좌에 간편하게 상품을 연결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의 연금저축 상품은 종합계좌 보유 사용자들이 손쉽게 연계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에 출시 두 달여 만에 10만개 계좌를 달성했다.

카카오페이증권 측은 “이른 시일 내 종합계좌 1000만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카카오페이와의 협력을 강화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 및 혜택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특히 ‘해외주식’과 ‘주식 모으기’와 같은 핵심 서비스의 확장을 통해 종합계좌 활성화는 물론 신규 사용자 유치까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투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16兆 돌파

2개월 만에 1兆 늘어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16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15조원을 넘긴 후 2개월 만의 성과다.

15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5조 8184억원으로, 2023년 말 12조 9601억원 대비 22% 증가했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의 202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23%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각각 30%, 60%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주요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과 위험BF1은 1년 수익률 26.56%를 기록하며, 올해 3분기 연속 증권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약 800개에 달하는 ETF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의 비대면 전환에도 공을 들였다. 지난해 디지털 연금부를 신설해 카카오뱅크 등 대형 금융플랫폼과 손잡고 IRP 계좌 개설 제휴를 확대했다. /허정윤 기자

신한투자증권, MTS ‘주주 우대 서비스’ 오픈

투자 기업 물품·서비스 구매 시 혜택

신한투자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에 ‘주주 우대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주 우대 서비스는 특정 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때 투자 본인의 혜택 이외에, 그 기업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주주로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최초로 시행하

는 서비스로 주주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최초로 실시간 잔고에 기반한 주주 확인 및 쿠폰 발급·사용 시스템을 IR큐더스와 함께 제공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주주 우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하은 기자

올해 5공장 본격 가동, ADC 생산... '글로벌 초격차' 수성

〈항체·약물접합체〉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전·로드맵

18만 리터 규모 5공장 4월 완공
2032년 '제2 바이오캠퍼스' 건설
2027년 준공 목표로 6공장 증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5'에서 행사 핵심 무대인 '그랜드 볼룸' 무대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 비전과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 무대는 주최 측이 초청한 기업 가운데 선별된 27개 기업만 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발표 순서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일라이 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들과 함께 예정됐다.

이날 발표 무대에 오른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5공장 건설, 포트폴리오 강화, 지난 2024년 기록한 사상 최대 실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는 5공장 본격 가동, 항체·약물접합체(ADC) 생산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



지난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5'의 핵심 무대인 '그랜드 볼룸' 무대에서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 비전과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4월 5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공사기간을 35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경쟁력에 격차를 벌린 것이다. 특히 해당 공장은 18만 리터 규모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규모인 총 78만4000L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확보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부터 지

난해 말 인천 송도에 완공한 ADC 의약품 전용 생산시설을 본격 가동한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2년까지 '제2 바이오캠퍼스' 건설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6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6공장은 5공장과 동일 규모인 18만 리터인데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생산능력을 96만4000리터로 확장해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를 유지한다

는 전략이다.

생산 능력뿐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립 13년 만인 지난 2024년 글로벌 규제기관에서 누적 제조 승인 건수 340건을 올리고, 99%에 달하는 배치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고성장을 이뤄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위탁개발(CDO) 관련 신규 플랫폼도 잇따라 선보여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에스-텐시파이, 에스-에이퓨초 등

5개의 신규 플랫폼 및 솔루션을 추가해 총 9개의 기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항체, 완제의약품, mRNA 등에서 항체·약물접합체(ADC)를 비롯한 아데노연관바이러스(AAV),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과 같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으로 생산 영역을 넓힌다. 향후 완전 자동화된 사전충전형주사기 생산에도 적극 대응한다.

존립 대표는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사업 비전과 로드맵에 발맞춰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4년 연간 주주 금액 5조원 시대를 열었고, 현재까지 누적 주주액도 176억달러를 넘겼다. 2024년 기준 연간 매출액도 전년 대비 15~20% 증가할 전망이다. 가운데, 이는 상장 연도인 2016년 매출 2946억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고성장이란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설명이다. /이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이폰SE4 등 공개 임박?... 애플, 점유율 되찾기 박차

3월이나 5월 아이폰SE 공개할 듯
초슬림 '아이폰17에어' 상반기 출시
프로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 예상



내년도 아이폰17 에어의 출시를 앞두고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IT팁스터(정보유출자) 애플트랙이 공개한 아이폰17 에어 예상 디자인. /애플트랙 유튜브

애플이 올 상반기 '아이폰SE4'와 함께 '애플17 에어'를 연이어 공개하며 점유율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 아이폰은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자랑했지만 최근 중국서 판매가 급감하면서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때 지취를 감췄던 아이폰SE 시리즈 신제품은 물론 애플 17에어까지 출시해 다시 입지를 되찾을 것이라 분석이다.

15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아이폰 SE의 새로운 버전이 오는 3월 또는 5월에 열린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새로운 아이폰은 코드명 '로마(Roma)'로 알려졌다. 아이폰 SE4와 같은 가능성이 유력하다.

블룸버그 기사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아이폰SE가 올해 초 출시될 것이라고 언급해 왔다. 아이폰SE4는 아이폰 14의 본체를 채택해 홈 버튼을 없애고

상단에 노치가 있는 옛지 투 옛지 화면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이폰14와 달리 아이폰16E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8GB RAM과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애플 전문 분석가 귀밍치도 자신의 블로그 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귀밍치는 아이폰SE4가 올해 상반기 중반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IT매체 맥무머스는 아이폰SE4의 이름이 '아이폰16E'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애플은 올 상반기 초슬림 모

델 '아이폰17 에어'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아이폰17 에어는 프로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원가 절감을 위해 단순한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폰17 에어 가격은 아이폰16프로 맥스 가격인 1200달러(약 174만원)보다 비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낮은 실제 899달러(약 130만원)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이폰16 플러스와 비슷한 가격대다.

아이폰17 에어는 애플이 역대 출시한 아이폰 모델 중 가장 얇은 스마트폰이다. 폰아레나에 따르면 아이폰17 에어의 두께는 6.25mm로, 아이폰16 프로 두께인 8.25mm보다 2mm 더 얇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아이폰17 에어는 2014년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6의 두께인 6.9mm보다 얇아 가장 슬림한 아이폰이 된다.

이에 프로 모델에서 제공하는 고급 기능은 일부 탑재되지 않지만 가격적으로 달라진 디자인만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애플이 올 상반기 신형 스마트폰을 대거 내놓는 이유는 최근 떨어진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 선두를 굳건히 유지했지만 중국 시장은 물론 전체 시장에서도 출하량이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8.7%로 1위, 삼성전자는 18.0%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각각 전년 대비 1.4%포인트(p), 1.5%p 감소한 수치다.

귀밍치는 지난해 12월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출하량이 10%에서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전체 출하량이 전년 대비 정체된 상황에서 아이폰의 출하량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귀밍치는 올해 4월을 전후해 아이폰SE4를 출시하더라도 상반기 출하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샤오미코리아 스마트폰·TV 등 신제품 국내 출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샤오미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다양한 신제품을 공개했다.

15일 서울 중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샤오미코리아는 ▲스마트폰 ▲TV ▲웨어러블 기기 ▲보조배터리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신제품을 소개했다.

스마트폰 부문에서는 프리미엄 기종인 '샤오미 14T'와 내구성을 강화한 '레드미 노트 14 프로 5G' 2종을 공개했다.

샤오미 14T는 독일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와 공동 개발한 카메라를 탑재,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색감과 깊이감 있는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구글과 협업한 '서클 투 서치'로 앱 전환 없이 화면 속 모든 정보를 즉시 검색할 수 있으며, 실시간 통역 기능을 제공하는 'AI 통역사', 녹음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AI 리코더', 촬영된 영상을 편집해 숏폼 콘텐츠를 만드는 'AI 필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가격은 12GB+256GB 모델은 59만 9800원, 12GB+512GB 모델은 64만 9800원이다.

레드미 노트 14 프로 5G는 보급형이면서도 뛰어난 내구성과 200MP(메가 픽셀) AI 카메라가 강점이다. 0.8mm 두께의 메인보드와 고강도 알루미늄 복합프레임을 갖췄으며, 샤오미 14T와 마찬가지로 AI 기반 촬영·편집 기능도 탑재돼 있다. 가격은 8GB+256GB 모델이 39만9300원, 12GB+512GB 모델은 49만9400원이다. /이혜민 기자 hyem@

트럼프 "관세청 설립, 취임 첫 월요일 세금 징수"

"美와 무역, 이익얻는 이들에 세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징수하는 "관세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온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취임 뒤 첫 월요일부

터 관세청이 관세 징수를 시작할 것"이란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이 실행되면 연간 수천억 달러의 추가적인 정부 수입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형편없는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 경제는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한 반면 스스로에게는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를 바꿔야 한다. 관세 등 모든 외국 출처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ERS를 신설할 것임을 발표했다"며 "우리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의회와 대통령이 설립한 기구인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이

관세를 담당한다. 관세청이 신설되면 CBP와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2023년 800억 달러(약 117조 원)의 관세를 거뒀다.

반면,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물가 상승을 자극해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길 것으로 지적해왔다.

일각에서는 관세 부과가 미국 가계에 세금을 매기는 셈이 될 것이라 주장도 나왔다.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관세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승일 기자 won@

배차 앱 이용 안 해도 가맹금 징수 카카오택시 대구본부, '2.3억' 과징금

공정위, 카카오택시 TK 제재 배회영업·다른 앱 사용에도 수수료 카카오택시 “행정소송으로 소명”

카카오택시 지역 가맹본부가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털모빌리티(이하 디지털)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블루는 카카오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택시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은 카카오택시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택시 가맹본부로 영업하고 있다. 디지털은 대구시에서 가맹택시 5701대를 운행 중이며, 2023년 10월 기준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6372대)의 89.5%를 차지한다.

카카오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



박진석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인 (주)디지털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카오택시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털은 카카오택시 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택시 앱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해왔다는 의미다. 이런 계약조항에 따라 디지털은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은 2020년 1월 ~ 2023년 9월 기간동안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앱 이용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해당 기간 디지털이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인 28.5%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김문수 “노동약자 위한 다각적 지원 약속”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 중구 평화시장 방문 경비 근로자 만나 방한용품 전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5일 서울 중구 평화시장을 방문해, 시장 내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평화시장은 상인들의 출자로 설립된 곳으로, 약 2850개 점포의 청소, 경비, 방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그들의 헌신에 감사사를 표했다. 그는 “평화시장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상인 대표들과 근로자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노동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 언급하며, 이 법이 노동 취약계층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정부가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노동 취약계층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의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 지원 ▲공제회 활성화 ▲경력 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약자지원법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나간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설 앞두고 배추·무 등 공급 확대 총력

농식품부, 폭염 여파 극복 나서

정부가 설을 앞두고 겨울배추 등의 시장 공급 확대에 나섰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명절 성수품 가운데 배추와 무, 배의 경우 지난해 폭염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수급안 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배추 공급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추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 대한민국김치협회, 대야청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각각 저장 중인 겨울배추 1000톤 이상을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도매시장에 출하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비축물량(3600톤)을 활용해 1일 200톤 이상 방출하고 계약재배 물량 확대 공급, 할당관세 조기 도입 등을 통해 수요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0대 설 성수품 중 축산물과 사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밤, 대추 등은 대체로 수급 상황이 양호했다. 반면 배추, 무, 배는 지난해 지속된 폭염 영향으로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폭염에 의한 햇볕대임(일소) 피해가 확산돼 유통 가능 물량이 감소한 배는 계약재배물량 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제수용 배의 날개 판매 활성화 등 고정수요 최소화화 및 수요분산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공급 여건이 양호한 사과, 포도 등으로 구성된 혼합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장영진 “새해 무역보험 252조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작년 97조원 역대 최대 중소기업 지원 올해 100조 이상 투입 목표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사진)은 15일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10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5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수출과 경제가 산다는 인식 아래 매년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했으며, 작년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역대 최대인 97조원을 지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무보는 지난해 역대급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해 전체 236조6000억원



의 무역보험을 공급, 역대 최대 수출실적(6838억달러)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사장은 “특히 7개 은행과 협력해 기존 무역금융보다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은 ‘수출패키지 우대보증’을 실시해 9880억원의 우대금융을 제공했던 것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금융부담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기존 협력 은행의 추가 출연에 더해 최초로 민간 기업의 출연도 추진해 우대금융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신선했던 ‘중견

기업부’에 ‘중견기업 2팀’을 추가해 확대 개편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수출금융의 영역을 기존 상품수출 중심에서 드라마,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해 중소·중견기업의 K-컬처글로벌화를 선도할 신상품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형 해외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해외지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외지사 업무를 기존의 채권회수, 신용조사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국가 내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발주처 앞 기업 마케팅 등 수주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그리드 산업, 원전 이은 차세대 성장동력”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안산 소재 비츠로이엠 현장방문 “글로벌 진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정부가 그리드 산업 등 에너지 분야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경기도 안산 소재 차단기 제조 중소기업 비츠로이엠 본사를 방문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드 산업 등 에너지 분야 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드 산업은 전선류,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발전기 등 전력기자재를 비롯해 ESS, 각종 솔루션 등을 포괄하는 분야다.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전

력기자재 9대 핵심품목 기준 지난해 수출액이 2023년 실적(104.5억달러)을 넘어 역대 최고치인 11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리드 수출업황과 전망 등을 공유하고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2배 이상 확대

산업부,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 경찰청·지자체 합동 단속 확대 실시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위해 제품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대상 제품 안전성 조사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조치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감시활동이다.

올해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는 지난해 조사한 450개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000여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안전성조사는 유통 시기, 판매량, 위해제품 적발 빈도 등을 고려해 4~6월(여름용품), 7~9월(위해 우려 품목), 9~11월(겨울용품) 등 3차례에 걸쳐 추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5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송뽕송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인터파크 바로가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작가 김지윤)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운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 인터파크 | 문의 02-764-9102

부산시, 지자체 최초 '육아 정책 브랜드' 특허청 상표 등록

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 저출생 극복, 돌봄·교육혁신 박차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등 확대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산의 대표 육아 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특허청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듯, 당신처럼 '온 부산'이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한다는 뜻을 담은 정책 브랜드다. 이는 지난해 1월에 시와 교육청, 16개 구·군과 22개 지역 대학 등이 함께 발표한 전국 최초의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의 정책 브랜드로 탄생했다.

시는 출생부터 책임 돌봄, 특화된 양육·돌봄·교육 정책을 모두 담은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취지와 상징성을 적극 활용하고자 업무 표장과 상



부산시 대표 육아 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 특허청 상표 등록증. /부산시

표 등록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8월 특허청에 업무 표장과 상표권 등록을 출원해 12월 26일 등록을 마쳤다.

앞으로도 부산의 저출생 극복과 부

산형 돌봄 및 교육 혁신을 상징하는 정책 브랜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상표 등록을 계기로 그간 추진 성과를 반영해 올해도 '당신처럼 애지중지'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부모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출생부터 부모 부담 제로(0)'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사업을 기존 3~5세에서 2세 현장 학습비까지 확대해 앞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나 틈틈없는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형 영영아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 등 기존 사업은 더 내실 있게 확대해 추진한다.

행복하고 배려받는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영유아·다자녀 가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인 '핑크 문화 데이'와 임신부·영유아가

족 배려 주차 구역 민간 기관 확대 등 시민과 함께하는 임신부·영유아우대 정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긍정적인 출산·육아 문화 개선을 위해 '부산형 육아 친화 마을' 조성 확대 ▲'독박 육아 탈출! 육아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리 동네 사회 가치 경영(ESG) 센터와 연계한 '애지중지 스페이스'를 통해 조부모와 부모,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과정을 공유·경험하는 공간을 만들어 세대 화합의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당신처럼 애지중지 브랜드의 상표와 업무 표장 등록은 출생부터 육아와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모아 혁신적으로 브랜드화해 '온 부산이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이도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대구시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 도모

대구시가 정부의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 사업'은 블록체인과 AI·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융합하고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과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구디지털 혁신진흥원과 함께 수성알파시티 일대에 오는 2028년까지 4년 동안 1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 체험 서비스 발굴을 비롯해 블록체인 융복합 기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전남도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2월7일까지 신청받아 민생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3월께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3월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전국적으로 지원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기장군

SNS 군 서포터즈 발대식

기장군은 군청에서 '2025년 기장군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군 서포터즈는 2025년 한 해 동안 ▲군 주요 정책 ▲군민에게 유용한 생활 정보 ▲숨어 있는 지역 이야기 ▲지역 문화 자원 발굴 등을 취재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군 공식 SNS 채널에 공유하게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현재 SNS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홍보와 소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서포터즈 한 분 한 분이 기장군 홍보대사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장(부산)=이도석 기자

경남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87억 투입

경남도는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재해대책비 292억원 포함 방제 사업비 587억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청과 합동으로 피해목 제거, 중요지역 예방 나무주사를 병행하고, 집단 피해지는 수종 전환 확대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14일 오후 창녕군 우포마을 도농교류센터에서 산림청장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창원(경남)=이도석 기자

포항시, 농업·농촌예산 1300억 돌파

지난해 1187억 대비 15.6% 늘어 경영 안정망 구축, 기후위기 대응 수출 300억 달성 위해 마케팅 강화

포항시는 올해 농업·농촌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300억 원을 돌파했다.

포항시의 올해 농업·농촌예산이 1373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1187억 원 대비 15.6% 증액된 규모다. 시는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올해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해 지역 농업을 한 단계 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영 안정성 확보 ▲식량안보 및 저탄소 농업생산 경쟁력 강화 ▲농업·농촌 활력 증진 ▲농촌지역 문화·복지시설 ▲농식품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 등 정주 여건 향상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농업인들에게 기본형공익직불금과 농어민수당을 비롯해 농업경영안

정용자금, 벼 재배 농가 완효성비료 등을 지원해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고, 저탄소 및 친환경 영농 지원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

또한 호미꽃면에 23억 원 규모의 경관치유농업을 확대 조성해 생태관광 중심지로 연계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1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축산분야에서는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반려동물 테마공원인 '포항펫월드'를 개장해 반려동물 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2030년 농산물 수출 300억 원 달성을 위해 포항시는 스마트AI 산지 유통시설 및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구축하고,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해 포항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완도~제주 오가는 '골드 스텔라호' 취항

운항 시간 선택 폭 넓어져

완도군은 '완도~제주' 항로를 오가는 대형 카페리 '골드 스텔라호'가 1월 15일부터 취항한다고 밝혔다.

골드 스텔라호는 매일 오전 9시 20분에 완도에서 출항하며, 제주에서는 오후 4시에 출항, 1일 1회 완도에서 제주를 왕복 운행한다.

골드 스텔라호는 완도에서 제주까지 2시간 30분이 소요되며 최대 948명, 승용차 343대를 수용한다.

현재 완도~제주 항로는 한일고속의 실버 클라우드호가 일 2회 운항되고 있는 가운데 골드 스텔라호 취항으로 완도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이 새벽, 오전, 오후에 생김으로써 운항 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져 승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골드 스텔라호는 특실, 마루·침대·캡슐 객실, 펫 룸 등 승객의 편의를 고



완도~제주 항로를 오갈 '골드 스텔라호' /완도군

려한 객실과 휴식 공간, 오락실, 키즈 룸 등 부대시설도 다양하게 갖췄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오전 시간에 완도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이 없어 여행객들이 아쉬움을 표했으나 이번 신규 여객선 취항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완도를 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나 관광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불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도, '우수 청년기업 인증' 참여사 모집

오는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모집

경상북도는 지역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청년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북 우수 청년기업 인증'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간이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북 도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하는 기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업력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200% 미

만 등 필수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우수 청년기업 인증' 기업 선정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대상 1차 정량평가(재무역량, 투자유치실적, 매출 및 고용창출 등), 2차 현장평가(기업역량, 아이템 사업성, 기업 운영 성과 등), 3차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한다.

우수 청년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10개 기업은 청년기업 인증서 교부와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청년기업 멘토단 운영, 홍보·마케팅 지원, 대·중견기업 및 업 지원으로 스케일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증가율 도내 '1위'

지난해 모금액 4.2억... 전년비 199%↑

지난해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증가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군에 따르면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총 모금액은 4억 2516만 8400원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다. 이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2024년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건수는 총 3579건으로, 이 가운데 3259건은 10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부 금액인 10만원 기부자였다.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는 38건이었으며 10만원 미만은 223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445건, 1억 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과 경기도 순이었다.

이 같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높은 증가율은 지자체 상호 기부 추진과 유관 기관 협력, 답례품 추가 선정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자체 상호 기부에는 ▲전남 영암군 ▲경남 고성군 ▲경남 진주시 등이 참여해 2500만원, 250만원, 7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또 산청군농협지부와 산청군농협이 타 농협 간 적극적인 상호 기부를 추진했으며 산청소방서, 산청교육지원청, 산청우체국, 경남은행 산청지점 등 유관 기관들도 힘을 보탰다.

/산청(경남)=이도석 기자

“제품협업 강화… 네스프레소, 홈카페 대표 브랜드 도약”

Q 르포 | 네스프레소 신규 캠페인 론칭 미디어 행사

네스프레소가 ‘협업’을 내세워 한국 커피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신규 캠페인 영상을 공개하고, 글로벌 협업 전략과 프리미엄 홈 카페 브랜드로의 도약 목표를 밝혔다.

15일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5 신규 캠페인 론칭 미디어 행사’를 열고, 네스프레소 신규 캠페인 영상 ‘사라진 커피,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공개했다.

행사는 서울과 뉴욕 단 두 곳에서만 진행된다. 이번 국내 행사에는 박성용 네스프레소 코리아 대표와 네스프레소 브랜드 앰배서더인 김고은 배우, 에드워드 리 셰프가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다.

네스프레소에 따르면, 신규 캠페인 영상은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의 매력을 “훔쳐서라도 마시고 싶은 커피”라는 메시지로 표현했다. 상속녀가 보물처럼 여기는 네스프레소 캡슐이 사라지면서 이를 찾기 위해 탐정이 기차 주방에서 사건의 비밀을 푸는 과정을 그렸다. 영상에는 김고은 배우를 비롯해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 카미유 코방, 에바 롱고리아가 출연했다.

행사는 박성용 네스프레소 코리아 대

표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박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 커피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으로, 이는 글로벌 평균의 2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업’을 2025년 주요 비전 키워드로 제시하며, 한국 시장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통해 네스프레소를 “프리미엄 홈 카페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박 대표는 다방면에서의 ‘협업’ 전략을 밝혔다.

가장 먼저 박 대표는 제품 협업을 강조하며 “2024년 말 스타벅스 버추오 캡슐을 전 세계 최초로 네스프레소 채널에서 판매했다”며 “올해는 스타벅스 외에 또 다른 브랜드 블루보틀과 협업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진행한 커피회사 ‘브레빌’과의 협업 사례를 들며 커피 머신 브랜드와 협업을 강화하고, 리테일 파트너사와의 협업 역시 이어 나간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리테일 파트너와의 협업은 저희 고객분들께서 네스프레소를 경험하고 만나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다. 작년 12월 네스프레소가 처음으로



박성용 네스프레소 코리아 대표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네스프레소 2025 신규 캠페인 론칭’ 발표를 하고 있다.



셰프 에드워드 리와 배우 김고은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네스프레소 2025 신규 캠페인 론칭’ 미디어 이벤트에 참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박성용 네스프레소 코리아 대표 “한국, 1인당 커피 연 450잔 소비 커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스타벅스·블루보틀 등과 협업 코스트코 외 더 많은 장소 진출”

코스트코에 진출했다”며 “코스트코 외에도 2025년에는 더 많은 장소에서 네스프레소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드 앰배서더 김고은 배우와의 협업도 주요 축으로 언급됐다.

박 대표는 “김고은 배우는 오는 2025년에도 아시아인 최초로 글로벌 네스프레소 캠페인의 주역으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김고은 배우는 “앰배서더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에 있는 네스프레소 커피농장에 방문한 적이 있다. 커피 나무가 농부들의 보살핌을 통해서 꽃을 맺고 열매가 열려서 한 잔의 커피로 태어난다는 게 새삼 와닿았다”고 커피 생산 과정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또, 신규 캠페인 영상 촬영 당시를 회고하며 “출연해 주신 모든 배우분들이

굉장히 유쾌하셨다. 이번 촬영에서 (탐정 역으로 출연하는) 조지 클루니를 속이는 장면을 촬영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한편,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한 에드워드 리 셰프는 김고은 배우와 함께 네스프레소 커피와 어울리는 디저트인 ‘네스프레소 레이어 케이크’를 소개했다. 네스프레소의 상징적인 커피 캡슐 ‘아르페지오’를 활용해 개발한 커피 페어링 디저트로, 해당 디저트 레시피는 추후 네스프레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롯데온 “세뱃돈 받으세요”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 500만 기념 세뱃돈 코드 빗썸에 등록하면 혜택

롯데쇼핑 e커머스플랫폼 롯데온이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 수가 500만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해 이달 21일까지 신년 세뱃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롯데온에 따르면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 수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503만명을 넘어섰다. 쇼핑 정보를 업선해 안내할 뿐 아니라 시즌오프 행사 소식, 단독 판매 브랜드 소식 제공 등이 가입자 수 증가에 주효했다는 게 롯데온 측 설명이다.

이번 신년 세뱃돈 이벤트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함께 진행한다. 롯데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뱃돈 코드를 받아 빗썸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1000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 고객을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빗썸 첫 회원가입 대상자에게는 1만원, 기존 빗썸 회원은 이벤트 기간 내 빗썸에 1원 이상 입금 시, 5000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에게 롯데 전 계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엘포인트 5만점도 지급한다.

/안재선 기자

갤러리아백, 내일부터 ‘웨딩 페스타’

서울 명품관서 10일간 진행

갤러리아백화점이 서울 명품관에서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웨딩 페스타 2025’ 행사를 10일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갤러리아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결혼 예물과 혼수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 할인권 지급, 10개월 무이자 할부, 더블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행사 기간 중 웨딩 마일리지 신규 가입 고객에게 3만원 금액 할인권을 지급하며, 해당 할인권은 이달 31일까지 매장서 20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또, 웨딩 마일리지 행사 참여 브랜드

에 한해, 행사 기간 3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명품·하이주얼리·패션·화장품·홈리빙 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더블 마일리지’ 혜택도 제공한다. 웨딩 마일리지 가입 고객이 행사 기간 중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250%까지 웨딩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이번 행사에는 펜디, 미우미우, 그라프 등 1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 일로부터 6개월 이후, 구매 금액의 5% 상당을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웨딩 마일리지는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를 지참해 카드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안재선 기자



11번가 드림이 로봇청소기 ‘X50 울트라’ 사전판매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글로벌 로봇청소기 브랜드 드림이가 선보인 로봇청소기 신제품 ‘X50 울트라’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11번가에 따르면, ‘X50 울트라’는 드림이의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대표 모델로 ▲전작인 ‘X40 울트라’ 제품 대비 2만 파스칼로 향상된 흡입력 ▲최대 6cm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프로립(Pro-leap)’ 기술 ▲낮은 공간 청소가 가능한 ‘버사리프트(VersaLift)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이 적용됐다. 이 외에도 자동 먼지통 비움, 물걸레 청소, 온수 세척 및 열풍 건조 기능을 갖췄다.

11번가는 이달 19일까지 사전 판매 행사를 열고, 신제품을 할인가에 제공한다. 구매 제품은 이달 16일부터 순차 출고될 예정이다.

구매 고객 대상 혜택도 마련됐다. 행사 기간 구매 고객에게는 11번가 간편결제서비스인 ‘11페이’에서 사용 가능한 3만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 포토 후기를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을 추가 증정한다.

/안재선 기자

릴 하이브리드 전용스틱 ‘믹스 브린’ 출시

KT&G, 믹스·아이스빙 등 총 12종

KT&G가 궤련형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lil HYBRID)’의 전용스틱인 ‘믹스 브린(MIX BREEN)’을 15일 전국 편의점에 출시했다.

‘믹스 브린’은 기호에 따라 다른 취향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릴 하이브리드 전용스틱 믹스는 ‘믹스’, ‘아이스 더블’, ‘아이스 빙’ 등 총 12종으로 확대됐다. 지난

2018년 출시된 릴 하이브리드는 액상 카트리지와 스틱을 동시에 사용하는 KT&G만의 독자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풍부한 연무량과 청소 불연 해소 등 편의성을 극대화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23년 ‘릴 하이브리드 2.0’을 업그레이드해 출시한 ‘릴 하이브리드 3.0’은 기존 모델과 포포먼스 면에서 동일한 ‘스탠다드 모드’와 ‘클래식 모드’, ‘캐주얼 모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SLL-GS리테일, 신성장동력 창출 MOU

상품판매·마케팅 등 공동추진 목표

글로벌 IP 파워하우스 에스엘엘중앙(SLL)이 GS리테일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LL의 다양한 콘텐츠 IP와 GS리테일의 상품 생산·유통을 결합해 양사의 채널 인프라를 활용한 상품 판매, 마케팅, 신사업 공동 추진 등을 목표로 한다. 양사는 MOU 체결을 통해 협업 상품 개발 및 판매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LL은 드라마, 예능 등의 강력한 IP를 제공하고 GS리테일은 상품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 라이선스 상품으로는 김밥, 도시락과 같은 신선식품(FF), 간편식, 밀키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IP를 활용할 첫 작품은 무엇일지, 이를 통해 어떤 제품이 탄생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SLL 박준서 제작부문 대표는 “GS리테일과의 협업은 콘텐츠 IP와 상품 생산·유통이라는 핵심 축이 결합한 것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이동훈 “유로파마 조인트 벤처 설립… 플랫폼 사업 박차”

(SK바이오팜 사장)



환자·의료진·병원 점점 확대
글로벌 CNS 시장 역량 강화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용화 속도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5'에서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이 SK바이오팜의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이 지속가능한 '제2의 세노바메이트' 성장기반을 마련하며 새로운 청사진을 공유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중추신경계(CNS) 질환 분야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 시장에서의 보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5'에서 남미 최대 제약사 중 하나인 유로파마와 미국 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인트 벤처 설립은 SK바이오

팜이 북미 현지에서 인공지능 기반 뇌전증 관리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이 조인트 벤처는 최소 3년간의 개발 및 운영 자금을 확보한 상태로, 본사는 미국에 세워지며 현지 경영진 채용, 현지 맞춤형 경영 계획 등이 수립된다.

특히 SK바이오팜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온 뇌파 분석 인공지능 기술과 뇌파 측정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속도를 낸다. SK바이오팜의 인공지능 기반 뇌전증 관리 플랫폼 '제로'는 뇌전증 발작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의료진이 과학적 데

이터를 근거로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 SK바이오팜과 유로파마의 조인트 벤처는 환자, 의료진, 병원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의료 환경과 환자 접점 플랫폼이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SK바이오팜은 이러한 플랫폼 사업이 세노바메이트뿐 아니라 후속 약물 파이프라인 구축, 신경계, 만성 질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SK바이오팜은 인공지능 기반 신약 연구개발 플랫폼 '허블 플러스' 등도 개발해 왔다. 허블 플러스는 SK바이오팜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인 방사성약품(RPT)과 표적단백질분해(TPD) 분야에서 연구 효율성을 높여주는 혁신 기술이다.

양사는 세노바메이트 경쟁력에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결합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혁신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는 유로파마를 통해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17개국에 판매되고, SK바이오팜은 품목허가 및 상업화 달성에 따른 마일스톤, 로열티 등 추가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바이오팜은 현재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 직접판매로 매출 성과를 거두며 기업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엑스코프리는 지난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으로, 지난 2024년 2분기 분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자체에 의해 발달 저하가 초래되는 질환인 레눅스-가스트 증후군 치료제 '카리스바메이트', 조현병 신약 후보물질 'SKL-20540', 조울증 신약 후보물질 치료제 'SKL-PSY' 등에도 역량을 쏟는다.

/이청하 기자 nlee236@metroseoul.co.kr

서진석 “CT-P70 등 13개 후보물질 IND 추진”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대표)



ADC 등 파이프라인 개발 전략 공개
“매년 새로운 신약 프로젝트 추진”

셀트리온이 세계 최대 시장에서 혁신 신약 개발 로드맵을 공개하며,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서의 도약을 알렸다.

셀트리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5' 행사의 핵심 무대인 메인 트랙에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전략을 처음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셀트리온그룹의 서진석 경영사업부 대표이사는 “셀트리온은 그동안 축적해 온 항체 의약품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세대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항체·약물접합체(ADC)’와 ‘다중 항체 신약’을 향후 셀트리온의 성장을 견인할 쌍두마차로 제시했다.

셀트리온은 우선 지난해 월드ADC에서 최초 공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CT-P70’, 방광암 치료제 ‘CT-P71’ 등을 바이오베터 ADC 신약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 치료제에는 셀트리온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발굴한 ADC 전문 기업 피노바이오의 ADC 플랫폼인 ‘PBX-7016’이 활용됐다.

셀트리온은 빠른 시일 내 임상 시험에 돌입해 같은 기전의 치료제 중 가장 우수한 효과를 자랑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 개발을 완료한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PBX-7016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낮은 독성을 나타내고 높은

종양 성장 억제 효과를 입증했다는 것이 셀트리온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이중 표적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이중특이적 ADC’, 합성 약물 페이로드를 조합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듀얼 페이로드 ADC’, 다중 항체 신약 등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대한다.

현재 셀트리온은 정상 조직세포와 암세포 간 차이가 확실한 세포독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양 표적의 독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다중 항체 항암신약 ‘CT-P72’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또 셀트리온은 안전성은 강화하면서 암 표적 항체를 활성화시키는 ‘조건부 활성화 다중특이 항체’, 다양한 면역 세포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는

‘면역항암 다중특이 항체’ 등으로 후속 파이프라인을 세분화한다.

특히 서진석 경영사업부 대표이사는 신약 후보물질의 연도별 임상시험 계획(IND)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 셀트리온은 오는 2028년까지 ADC 분야에서 9개, 다중항체 분야에서 4개 등 총 13개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순차적으로 제출한다.

셀트리온은 올해 ADC 신약 CT-P70, CT-P71, CT-P73과 다중항체 신약 CT-P72에 대한 임상에 돌입하고, 오는 2026년에는 ADC 신약 2건, 다중항체 신약 2건, 2027년 ADC 신약 3건, 2028년 ADC 신약 1건, 다중항체 신약 1건 등의 임상을 진행한다.

서 대표는 “차세대 신약 개발을 본격화한 지 2년 만인 올해 4개 신약 후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5'의 메인 트랙에서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대표이사가 발표하고 있다. /셀트리온

보물질이 임상에 진입하는데 매년 새로운 신약 프로젝트는 이어질 것”이라며 “선두 후보물질은 비임상부터 남다른 개발 속력과 성과를 보이고 있어 셀트리온이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도약하는 목표는 빠르게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CJ제일제당, BIO 부문 주요 사업장 LCA 완료

글로벌 고객사 니즈 선제 대응

CJ제일제당이 BIO사업부문 주요 사업장에서 전과정 평가(LCA)를 완료하며 글로벌 지속가능경영(ESG)에 속도를 낸다.

CJ제일제당은 5개 국(미국·브라질·인도네시아·중국·말레이시아) 7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41종 제품에 대한 LCA 산정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제3자 타당성 평가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식품, 그린 바이오 업계에서 단일 제품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LCA 검증 받은 첫 사례다.

LCA는 원료 조달부터 제품 제조·운송·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투입되는 물

질과 에너지,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정량화해 환경 영향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이번 제3자 타당성 평가는 글로벌 에너지·환경 전문 인증 기관인 DNV가 맡았다. DNV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으로 각 제품별 ‘출고 전 과정’에서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주요 환경영향 지표 값을 바탕으로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에 검증 받은 제품은 차별화된 천연 발효공법으로 생산하는 차세대 조미소재 테이스트엔리치(TnR)뿐 아니라 라이신, 트립토판, 알지닌 등 사료용 아미노산 등이다. 특히, 사료용 아미노산의 경우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에서 개발한 LCA 산정 기

드를 준수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CJ제일제당은 이번 LCA 타당성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중시하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그린 바이오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고객사의 ESG경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중이다. 사료 배합비와 탄소발자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BIOFEED’를 활용해 기술 마케팅 역량을 한 층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윤석환 CJ제일제당 BIO사업부장은 “친환경 공법으로 아미노산을



CJ바이오아메리카 포트닷지 사업장 전경. /CJ제일제당

양산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그린 바이오 시장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며, “앞으로 국제 표준화된 LCA 체계를 기반으로 저탄소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배출량 감축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아제약 박카스 공급 가격 인상

동아제약은 오는 3월 1일부터 약국에서 판매하는 박카스D와 일반 대리점에 유통하는 박카스F의 공급가격을 소폭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박카스D의 가격 인상은 지난 2021년 11월 1일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인상 폭은 공급가격 기준 10.9% 인상된다. 박카스F도 2021년 12월 1일 이후 3년 4개월 만에 공급가격 기준 11.1% 인상된다. 이번 가격인상은 일반 대리점에 유통하는 박카스F에 한한다.

동아제약은 원부자재와 제조경비 등 제반경비의 지속된 상승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이번 가격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롯데상동복지재단, '사랑의 행복나눔 사업' 기증식

롯데상동복지재단이 지난 1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울산 5개 지역 취약계층에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신격호 롯데 사랑의 행복나눔 사업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장혜선 롯데상동복지재단 이사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상동복지재단



KCC,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5억 기부

KCC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5억5000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15일 KCC에 따르면 자사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에 기부금을 분할 기탁함으로써 기부 혜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필요한 지역에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KCC



BNK경남은행, 창원시에 1억 상당 '복꾸러미' 기탁

BNK경남은행은 '설날맞이 사랑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창원특례시에 1억원 상당의 '복꾸러미'를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침가루, 고추장, 참치, 당면, 김 등 식료품 18종이 담긴 복꾸러미는 창원특례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2000세대에 나눠 지원된다.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오른쪽)과 흥남표 창원특례시 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에몬스, '2025 장학금·장학증서' 수여

에몬스는 인천시 고잔동 본사에서 '2025 에몬스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에몬스 장학회는 20명의 학생에게 1인당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에몬스 김경수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몬스



인하대, 제4회 'INSTAR 페스티벌' 개최

인하대학교는 최근 제4회 INSTAR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INSTAR 페스티벌에선 혁신인재양성사업 재선정 평가에서 예비 선정된 스마트시티, 우주 분야 2개 교육연구단에 대한 명대 수여식이 진행됐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 페스티벌에 참여한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삼성, 협력사 대금 5600억 조기 지급... 온라인장터 운영

**삼성전자 등 11개 관계사 참여
홍삼액, 떡국떡 등 판매**

삼성 관계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온라인장터를 운영하며 내수 경기 활성화에 앞장선다.

15일 삼성은 협력회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물품대금 5600억원을 최대 3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1개 관계사가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스마트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3200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제조혁신 노하우 전수, 미활용 특허 무상 개방, AI시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이 온라인 장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모습. /삼성디스플레이

템 접목, 전문인력 양성 등의 혜택을 받는다.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와의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선정된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협력회사들의 ESG 경영 전환을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협력회사 ES

G 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 협력회사들은 최대 20억원을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납

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또 삼성 17개 관계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장터 운영과 협력회사 물품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돕는다. 삼성 관계사들은 설 연휴 직전까지 사내 게시판과 지자체 쇼핑몰, 소상공인 직거래몰 등에서 온라인 장터를 운영한다. 임직원들은 이 장터를 통해 농축수산물 등 전국 특산품과 스마트공장 제품, 자매마을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 온라인 장터에는 삼성전자가 제조기술 노하우를 전수한 '스마트공장' 업체 60개 이상이 참여해 홍삼액, 배도라지 농축액, 돌미역, 떡국떡 등을 판매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지역사회에 '이쉐어' 친환경차량 전달

김동욱 부사장 "지속가능 미래 기여"

현대자동차그룹이 정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친환경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15일 경기 파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행복드림에서 '이쉐어' (E-Share) 친환경차량 전달 및 충전소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쉐어는 지역사회 내 전기차 저변 확대와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이 환경



박정 국회의원(왼쪽부터), 환경부 김완섭 장관, 행복드림 김해정 시설장,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이 15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행복드림(경기도 파주 소재)에서 '이쉐어' 친환경 차량 전달 및 충전소 개소식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과 함께 시작한 친환경 전기차 패키

지 지원 사업이다. 개소식이 열린 행복드림은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된 곳이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부터 이쉐어 사업을 실시, 매년 4개 사회복지기관에 전기차 1대와 공용 충전기 2~3기를 지원했다. 지난 2년간 80개 기관에 총 80대 전기차와 공용 충전기 200기를 제공했다. 올해도 40개 기관을 선정해 전기차 및 충전기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지원된 전기차와 충전기는 빠르고 편한 이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도 여러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남양유업, 특수분유 생산 40주년 맞아

환아·가족 위한 사회공헌 지속

남양유업이 올해로 특수분유 생산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환아와 가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1985년 '임페리얼드림 XO알레기'를 시작으로 환아들을 위한 맞춤형 특수분유를 선보이며 국내 특수분유 시장을 선도해왔다. 희귀 질환 환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분유

시장은 대량 생산이 어려워 경제적 수익은 없으나 남양유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꾸준히 제품 개발과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 제품인 ▲'임페리얼드림 XO알레기'는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인 갈락토스혈증 환아를 위해 개발된 특수분유다. 대두 단백질과 식물성 당류를 사용해 유당 및 유단백 소화 가 어려운 환아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같은 해 출시된 ▲'임페리

얼드림XO이른둥이'는 저체중아 및 미숙아의 영양 보충에 중점을 둔 특수분유다. 1991년에는 묽은 변 등 장 건강 문제를 가진 아기를 위해 ▲'임페리얼드림XO 닥터'를 출시했다.

이밖에도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뇌전증 환아를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인 '뇌전증 인식개선의 날(떠플데이)' 캠페인을 사단법인 한국뇌전증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브란스어린이병원과 협약해 15년째 취약계층에 특수분유 무상 후원을 추진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 U+ 협력사 상생경영 앞장

납품대금 300억 현금 조기지급

LG유플러스가 설 명절을 맞아 1300여 중소 협력사에 납품 대금 300억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기 집행 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부터 설·추석 등 명절 전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며 협력사와 상생을 도모해 왔다. 올해 설 명절까지 조기 집행된 납품 대금의 누적 액수는 5200억원에 이른다. /구남영기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

'매일오네' 협력 모델 구축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CJ대한통운은 15일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와 안정적인 '매일오네(O-NE)'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업계 최초로 지속가능한 택배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종

사자들이 협력해 상생 모델을 마련한 사례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소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매일오네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에 서명하고, '매일오네' 서비스의 안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 근로환경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이번 기본협약은 택배기사 휴식권과 복지제도 확대,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에 대해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

협약을 통해 대리점연합회는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휴가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출산휴가를 신설해 배우자 3일, 본인의 경우 최대 60일을 부여하고 경조사휴가 최대 5일, 특별휴무 3일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음

▲구태근(BNK경남은행 상무)씨 장인상=15일, 진주시 진주대로 885 진주제일병원 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17일. 055-750-7100

▲조종구씨 별세, 신창동(경남에너지㈜ 대표이사 회장)씨 장인상=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8일. 055-260-4261

한반도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연운열의
푸드특독

한 국가의 식량안보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세계식량안보지수(GFSI)가 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해 매년 발표되며, 전 세계 113개국의 식량안보 상태를 평가한다.

GFSI가 정의한 식량안보는 1996년에 FAO가 채택한 것과 비슷하다. 즉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시키는 충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의 2022년 GFSI 총점은 70.2점으로 113개 대상 국가 중 39위를 기록했다. 주요 4대 평가 항목에서 한국의 식량부담 능력은 76.8점(51위), 식량 공급 능력은 71.5점(11위), 품질과 안전은 71.5점(50위), 지속가능성과 적응력은 58.5점(34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수는 고소득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의 GFSI 점수가 큰 폭으로 낮게 산출된 이유

는 0점으로 평가된 항목이 많아서인 듯하다. 한국이 0점을 받은 세부 지표는 식량 부담 능력 중 농산물 수입 관세, 식량 공급 능력 중 작물 보관시설과 식량안보 전략 및 식량안보 전담 기구, 품질과 안전 중 국가 식품 지침과 국가 영양계획 및 전략, 지속가능성과 적응 중 부영양화, 기후 재정의 흐름, 환경-경제 회계 이행, 조기 경보 조치 및 스마트 농업, 수출 관리에 관한 약속 등 총 10개에 이른다.

한국은 식량안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생산성 향상, 식량유통의 체계적인 개선, 글로벌협력 시스템구축 등을 통해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적 식량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전략적 검토가 요구되며,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과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농업기술의 진보등 과거에 비해 국내의 식량 생산량은 충분히 증가했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기술 개발은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에 대한 대처에는 한계가 있으며, 식량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낭비와 손실을 줄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국제적인 식량안보 문제는 초고령화등 인구증가와 기후변화로 인

해 심각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협력이 필요하다.

식량안보는 개인에서 국가, 전 세계적인 차원까지 중요한 이슈이며, 이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밀농업과 스마트팜과 같은 혁신적인 농업기술 도입과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방법이 필요하며, 이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기온 상승과 기후 패턴 변화로 인해 식량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70여년 뒤인 21세기 말 한반도의 쌀 생산량은 30% 정도 줄어들고 쌀의 맛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새로운 품종 및 재배법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 바 있다.

국제 식량 시장은 각국의 식량 생산량과 소비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며, 이는 식량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식량 자급률이 높을수록 자립적인 식량 생산으로 불안정한 국제 상황에서도 안전해 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SG 푸드테크 소사이어티 대표

약속 깬 GGM 노조파업... 투자철회 등 악영향 우려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국내 첫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출범 5년만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19년 1월 현대차와 광주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노·사·민·정 사회대타협 일자리'를 기지로 출범한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GGM은 '저임금 무파업'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업계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GGM은 현대차가 개발한 경형 SUV 캐스퍼를 위탁 생산했으며 생산한 차량을 다시 현대차가 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

됐다. 덕분에 '전국 최초 노사 상생 일자리 기업' '무노조·무파업·저임금으로 성공한 회사' '상생의 일터' 등 연일 GGM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그러나 GGM은 설립 5년여 만에 위기에 봉착했다. 법인 설립 5년, 소형 SUV 캐스퍼 양산 3년 4개월 만에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국내 첫 지역형 일자리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GGM내 2개 노조가 통합해 출범한 뒤 지난해 5월 급속노조에 가입하면서 감지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며 사측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노조는 출범 당시 약속을 뒤로한 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월 급여 7% 인상, 호봉제 도입, 상여금 3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물가인상률을 넘어서는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GGM은 설립 당시 35만 대 생산까지 초임은 3500만원(44시간 근무 기준), 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현재 GGM의 누적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16만대에 불과하다.

GGM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탄생했지만 임금 인상과 파업으로 약속이 깨지면서 노사 상생 모델의 취지와 의미가 무색해졌다. GGM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면 주주들은 투자를 철회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기업들의 광주지역에 대한 추가 투자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조는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GGM이 당장 눈앞에 놓인 이익만을 쫓은 노조의 파업으로 오히려 기업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6일 (음 12월 17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하늘도 높고 세상도 넓다. 48년생 실속은 별로 없는 속빈 강정. 60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72년생 이익이 없고 가난하다고 손수한 것은 아니다. 84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사람을 경계.
- 소** 37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포기할 줄도 알아야. 49년생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사회생활이 힘들다. 61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을. 73년생 이만하면 훌륭한 인생이다. 85년생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살펴보자.
- 호랑이** 38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운동을 하고 소식하라. 50년생 성실에서 멀어질수록 불편하고 허무함이 밀려온다. 62년생 감정을 절제하고 청산하라. 74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려오니 행복이 크다. 86년생 성공은 아직 앞에 있다.
- 토끼** 39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게. 51년생 거울은 반드시 혼자 웃지 않는다. 63년생 행복한 이웃이 옆에 있어서 좋다. 75년생 체면치레로 지갑의 돈을 다 써버린다. 87년생 매사가 귀찮고 심드렁한 날.
- 염** 40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 52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간다. 64년생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하라. 76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88년생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 뱀** 41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설득시킬 수 있는 것. 53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 65년생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킬 운이 온다. 77년생 선배상사가 길을 터주니 일이 수월하다. 89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도 있게 마련인데.
- 말** 42년생 참기 힘든 건 잊히는 것. 54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신어야 한다. 66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다. 78년생 남녀사이 서두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90년생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 했으니.
- 양** 43년생 그물을 쳐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55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67년생 좋은 일을 행하니 행운이 찾아온다. 79년생 방법을 찾아 강물이 바다로 진출하는 날. 91년생 남비 요소를 찾아서 구멍을 메워야 한다.
- 원숭이** 44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56년생 양보로 동료와의 의견충돌을 막자. 68년생 양보다 질을 따지고 선택하라. 80년생 바늘 가는 데 실 가는 격으로 술술 풀림. 92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하니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 닭** 45년생 배우자가 나의 고생을 알아주니 마음이 가볍다. 57년생 조금이라도 일을 그려 칠 수 있으니. 69년생 부모님 증여를 손리로 풀어가야 할 듯. 81년생 시험 운이 백발백중(百發百中)이다. 93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 개** 46년생 밭 없는 말이 천 리를 가니 남 얘기 말라. 58년생 명모삼천지교이니 이사회도 무방하다. 70년생 내가 자식의 미래라고 생각. 82년생 대기만성(大器晩成)이라 하듯이 세상 이치다. 94년생 매매는 호랑이따위의 거래가 순조롭게 풀린다.
- 돼지** 47년생 누구나 외로운 것. 59년생 영업실적이 상승. 71년생 고칠 수 없는 마음은 버리면 된다. 83년생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려 놓으니 그 미꾸라지 되지 않도록. 95년생 직장에서 미운 사람에게 딱 하나 더 주는 마음으로 양보를 해보라.

김상회의四季

소원 들어주는 정월 보름달



동양에서 달은 음양 중에서 음에 해당하며 여성으로 본다. 달은 여신의 상징이며 풍요의 상징으로 그래서 새해에 뜨는 첫 보름달을 소원을 이루어주는 영험한 표상으로 삼았다. 음력 설날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 정월 대보름날이다.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올해는 양력으로 2월 12일이다. 예로부터 첫 보름달이 뜨면 달의 여신에게 새해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행사를 치렀다. 달이 신화적으로 풍요의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필자가 주석하는 월광사에도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아무쪼록 어려운 일 생기지 않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누다.

복을 부르는 대보름 풍습이 지금도 내려오는데 대표적인 게 오곡밥을 먹는 것이다. 오곡밥은 다섯 가지 잡곡으로 밥을 해서 먹는 것인데 흔히 쌀 보리 조 콩 기장을 말한다. 곡식 다섯 가지로 오곡밥을 먹을 때 햇빛에 말려두었던 무 호박 가지 버섯 고사리 등의 다섯 가지 나물을 같이 먹기도 한다. 이렇게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밤 잣 호두 같은 단단한 견과류를 깨물어서 버리는 부럼깨기도 있다. 이는 한해 내내 부스럼 같은 질병이 생기지 말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대보름날의 가장 재미있고 신나는 행사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올라갈 뒷동산이 없으니 저녁 식사 뒤 산책을 하면서 또는 늦은 퇴근길에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될 듯하다. 이런 풍습은 오곡밥은 맛집 순례, 부럼깨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요즘에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색다른 재미와 소원 성취를 바라는 마음이 합쳐지면 한해 동안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도 잘 풀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특별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7	1	8	6	2	9	9
8	9	6	7	8	2	9	1
9	8	2	9	1	7	6	8
6	9	9	2	7	8	8	1
1	1	8	9	6	8	9	2
2	1	7	1	9	8	6	9
7	9	8	1	9	8	1	6
9	6	1	8	9	7	1	8
1	8	8	6	2	9	1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9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9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음쓰 처리시설 확충·개인컵 사용... 기후위기 안전도시 조성

(음식물 쓰레기)

서울시,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10월 강동구에 음식물 시설 건립
음식물 360t, 음폐수 270t 처리
식당·카페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개인컵 사용 인센티브 캠페인도

서울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자원화, 친환경 생활 문화 확산, 오존원인 물질 배출 저감 등을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우선 10월 강동구에 음식물 처리 시설이 들어선다. 강동 음식물 처리 시설의 하



다회용기 사용 예시. /서울시

루 음식물, 음폐수(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폐수) 처리량은 각각 360t, 270t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하고, 음폐수는 바이오가스로 만들어 재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내년 12월까지 서남 폐수처리 시설을, 오는 2029년 1월까지 난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하는 과정에서 걸러져 나온 액체를 바이오가스화해 처리하는 서남 시설의 일일 처리 용량은 330t이다. 실시 설계 후 착공한다.

난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다. 하루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은 300t, 농축분뇨 처리량은 50t이며, 건립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거 시스템도 구축했다. 작년 시는 시민 편의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중·감량기 보급을 확대했다. 관내 자치구에 RFID 종량기(1647대), 대형 감량기(35대)를 보급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 문화 정착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시는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매장과 주요 거점에 다회용품·탈포장재 운영 기반을 마련해 폐기물을 줄였고,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했다.

개인 컵 사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벌여 텀블러 사용을 늘렸고, 배달앱·장례식장·체육 시설·축제 등에 다회용기 이용 체계를 구축했다. 1회용품 포장재를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친환경 매장도 지원했다.

작년 시는 개인 컵 사용의 날 캠페인을 24회 운영해 일회용 컵 3만7000개를 원천 감량했다. 또 배달용 다회용기 이용

지역을 2023년 10개구에서 지난해 15개구로 늘려 일회용기를 22만개 줄였다.

다회용기 도입 정책을 시립 장례식장에서 민간으로 확대해 일회용기 328만개를 감량했고, 한강공원이나 대학 등에서 진행된 142개 축제·행사에서도 다회용기 160만개를 사용토록 했다.

오존 농도를 낮추기 위해 주요 원인 물질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발생 저감 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 관급 공사장에서는 환경표지인증도료를, 공공 간행물엔 친환경 잉크를 사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증기 회수 설비(21개소) 기술 지원 및 친환경 세탁기(6개소), 회수 건조기(17개소) 설치 지원 등 VOCs 발생원 집중 관리를 추진했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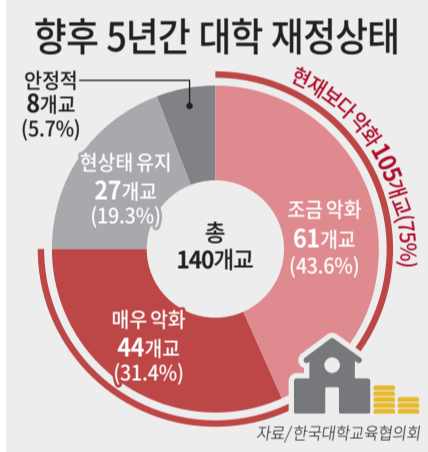
대학총장들, 최대 관심사 '재정지원 사업'

대교협, 140개교 대학총장 설문
응답자 53% "등록금 인상할 것"
75% "향후 5년 재정 악화 예상"

17년째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이 지속되면서 총장들의 주된 관심이 '재정지원사업'과 '신입생모집'에 쏠렸다. '등록금 인상'과 '발전기금 유치'와 관련해선 전년보다 관심이 상승하며 대학의 어려운 재정상황이 반영됐다. 대학 총장 10명 중 7명 이상이 향후 5년 간 재정이 현재보다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총장 설문조사(1)'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92개교 회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진행해 140개교(응답률 72.9%) 총장들이 설문에 응했다.

현 시점 대학 총장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영역(복수 응답 가능) 1위는 '재정 지원 사업'(77.1%, 10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연간 2조원 규모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의



본격 도입으로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71.9%)보다 5.2%p 상승했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위는 '신입생 모집 및 총원'(62.9%, 88명)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재정 지원 사업'과 '신입생 모집 및 총원'은 '총장 최대 관심사'로 변동이

없다. 3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56.4%, 79명)이었다.

4위는 '등록금 인상'(55.7%, 78명)으로, 지난해(43.7%)보다 12.0%p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전국 사립대 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90명 중 53.3%는 '등록금 인상안을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힌 비율도 42.2%에 달하며 총장들이 올해는 '등록금 인상'에 의지를 보인바 있다.

이밖에 ▲5위 재학생 등록 유지(38.6%, 54명) ▲6위 학생 취업 및 창업(35%, 49명)에 이어 7위는 '발전기금 유치'(30.7%, 43명)가 꼽히며 지난해(23.7%)보다 관심도가 7.0%p 상승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과제들이 관심사로 떠오른 모습이다.

향후 5년간 대학 재정 상태에 대한 예상을 묻자,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대학이 105개교로 75%에 달했다. 61개교가 '현재보다 조금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고, 44개 대학은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상태 유지'를 예상한 대학은 19.3%인 27개교에 그쳤다. '현재보다 안정적'으로 예상한 대학은 8개교(5.7%)로 나타났다. 이중 광역시 대학은 없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의 건강한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대학에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과, 과감한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 대학이 유연하고 신속한 혁신과 발전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자율적 생태계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안성~구리 고속도로 72.2km 구간 개통

광주시, 도로망 확충·지역활성화 기대

광주시를 통과하는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며 지역 교통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는 구리시(남구리 나들목)에서 안성시(남안성 분기점)까지 총연장 72.2km, 왕복 6차로로 수도권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개통으로 인해 광주시는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편의성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으로 광주시와 인근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강화되며 물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 안성에서 구리까지 88분이 소요되던 것이 약 39분으로 줄어들어 이동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시는 이번 고속도로 개통은 수도권 교통 흐름의 분산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상습 정체로 교통반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도로 개통은 광주시의 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류 이동이 원활해짐에 따라 기업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신규 주거 단지와 상업시설 개발로 인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이번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의왕~광주 고속도로, 용인~광주 고속도로, 경기광주TG 병목 지점 개선 사업 등 상급 기관에서 추진하는 도로망 확충 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협조할 계획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서울시, 공시지가 정확성·균형성 높인다

'공시가격 검증 지원 센터' 운영

서울시가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권역별·용도별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지원 센터를 가동기로 했다. 센터 운영은 광역 차원에서 상시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표준지 공시가격 조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권역별·용도별 공시지가 실태 조사를 벌여 적절한 지가와 관련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 구역간 공시지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서울형 공시지가 맞춤형 분석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의 균형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월 16일 (목)
음력: 12월 17일
수도권 날씨
-5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尹 체포에 日 정부 "한일 관계 중요성 변함 없어"
▲LA 산불 사망자 25명으로...예상보다 약한 강풍에도 위험 여전 /사진 AP/뉴스시스

▲트럼프 '대선 뒤집기 의혹' 특검 보고서 공개... 5가지 핵심 내용
▲尹체포, 각종 외신 홈페이지 1면 장식... "한국, 역사적 순간"

▲美, 중·러 기술 포함된 커넥티드카 금지 조치 확정
▲가자 휴전합의 목전...네타냐후, 긴급 안보회의 소집



네스프레소
제품협업 강화 등
홈카페 브랜드로
나



Life

SK바사
유로파마와
조인트벤처 설립
L2



“캐릭터로 변신한 토종 새… 글로벌 메가 IP로 날개 펼칠 것”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박 설 희 아시아홀딩스 대표

‘팔색조 피타(Pitta), 동박새 화이트(White), 매 캐스커(Kasker), 종다리 젤다(Zelda), 큰오색딱따구리 우디(Woody).’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제주도를 대표하는 다섯마리 새를 모티브로 만든 토종 캐릭터의 이름들이다.

이 가운데 ‘길치’이지만 호기심과 모험심이 강한 탐험가 캐릭터 ‘피타’는 제주도에 있는 원시림을 형상화한 ‘꽃자왈 하우스’에 산다.

이들 다섯 종 캐릭터 모두 제주도의 깊은 숲 ‘거명숲’에서 태어났다. 거명숲의 수호자이자 자연에서 탄생한 생태문화콘텐츠 버디프렌즈(Birdy Friends)다.

“난 부동산 전문가다. 제주시에 있는 캠퍼트리 호텔엔리조트 개발을 하기위해 PM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 사계절 동안 조사를 하면서 조류, 파충류, 초목, 대기 등을 모두 접했다. 그러다가 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제주의 자연에 대한 학습, 경험, 접촉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버디프렌즈를 탄생시켰다.”

아시아홀딩스 박설희 대표의 말이다.

사진학과를 다니면서 대학에서 다큐멘터리를 전공한 그는 영화사 프로듀서 등을 거쳐 부동산 시행사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PM으로 잔뼈가 굵었다. 서울 잠정동에 있는 옛 타워호텔을 개발한 반얀트리호텔도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이다.

그러다 지속 가능한 호텔·리조트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주에 있는 캠퍼트리 호텔로 발길을 옮겼다. 그는 현재 이 호텔 대표도 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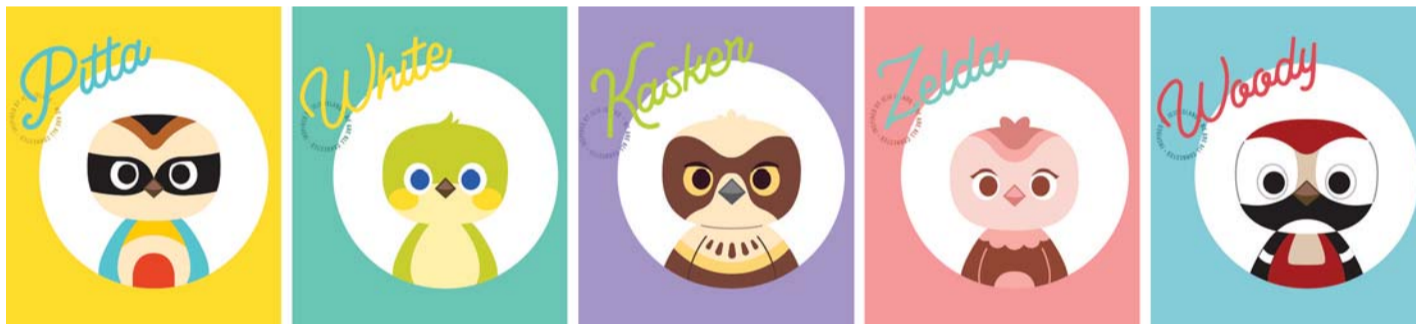
박설희 대표는 “전 세계 캐릭터 메가 IP(지적재산권) 가운데 ‘톱 20’ 안에는 한국 캐릭터가 하나도 없다. 일본의 포켓몬, 헬로키티, 미국의 곰돌이 푸, 미키마우스, 스타워즈가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의 앵그리버드가 유일하게 일본과 미국 캐릭터 사이에서 20위 안에 포함돼 있다. 앵그리버드는 핀란드의 모태펀드가 투자해 성장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 문화콘텐츠 시장은 R&D나 펀드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대표가 탄생시킨 버디프렌즈는 캐릭터계의 ‘5인조 K-아이돌’을 자처하며 월드스타를 꿈꾸고 있다.

‘거명숲을 지켜라. 버디프렌즈’ 애니메이션 시리즈 1~3편은 지난 2023~2024년 KBS2를 통해 공중파 방송을 뒀다. 아이돌그룹 세븐틴 디에잇이 OST에 참여했



박설희 아시아홀딩스 대표가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버디프렌즈 포토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버디프렌즈 캐릭터. 왼쪽부터 팔색조 피타, 동박새 화이트, 매 캐스커, 종다리 젤다, 큰오색딱따구리 우디.

/아시아홀딩스, 버디프렌즈 홈페이지



자연 학습 경험 위해 ‘버디프렌즈’ 탄생
제주도 토종 새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
KBS서 애니 방영… 올해 극장판 계획

모든 세대에 생태환경 중요성 알려
ESG 담은 글로벌 캐릭터로 만들고파

캐릭터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체인화
생물다양성 미래 전시관 건립 계획도

다. 올해엔 극장판도 계획하고 있다. 미래에 월드스타를 꿈꾸는 버디프렌즈가 일단 성공적으로 데뷔한 셈이다.

최근엔 제16회 마카오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까지 받아 시상식, 레드카펫 무대, VIP 리셉션 등 각종 행사에서 버디프렌즈 캐릭터를 뽐냈다.

버디프렌즈 세계관에는 생물다양성, 기후위기, 멸종위기종에 대한 스토리가 곁고루 반영돼 있다.

여기엔 박 대표의 철학도 함께 녹아 있다.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개선) 캐릭터’인 셈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에게도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아이와 어른이 모두 버디프렌즈의 타깃 고객이다. 자연에서 배우는 용기, 우정, 배려, 사랑, 탐험, 끈기, 창조 등의 이야기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제주 중문 입구에는 버디프렌즈로 꾸민 복합문화공간 ‘버디프렌즈 플래닛’이 있다.

박 대표는 “이미 구축한 버디프렌즈 콘텐츠를 활용해 키즈 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을 체인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면서 “학

교 급식엔 버디프렌즈 빵이 들어가고, 이마트24를 통해선 올해부터 ‘딸기파이’, ‘씨앗호떡’ 등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버디프렌즈 캐릭터는 현재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몰에서도 판매한다. 제주공항, 캠퍼트리 호텔에는 버디프렌즈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있다.

성공한 캐릭터의 파급력은 엄청나다. 글로벌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박 대표는 특히 버디프렌즈라는 ‘K-ESG 캐릭터’를 통해 이를 실현하는 것을 꿈꾼다.

그는 “제주서 시작한 버디프렌즈는 중국을 거쳐 UAE, 동남아 등으로 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실내 테마파크인 ‘생물다양성 미래 전시관’도 건립할 것이다. 캐릭터를 통해 UN과 같은 기업을 만들고 싶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메가 IP를 만들어 놓고 죽고 싶다”는 박대표는 현재 투자 여건이 쉽지 않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투자자를 물색하느라 분주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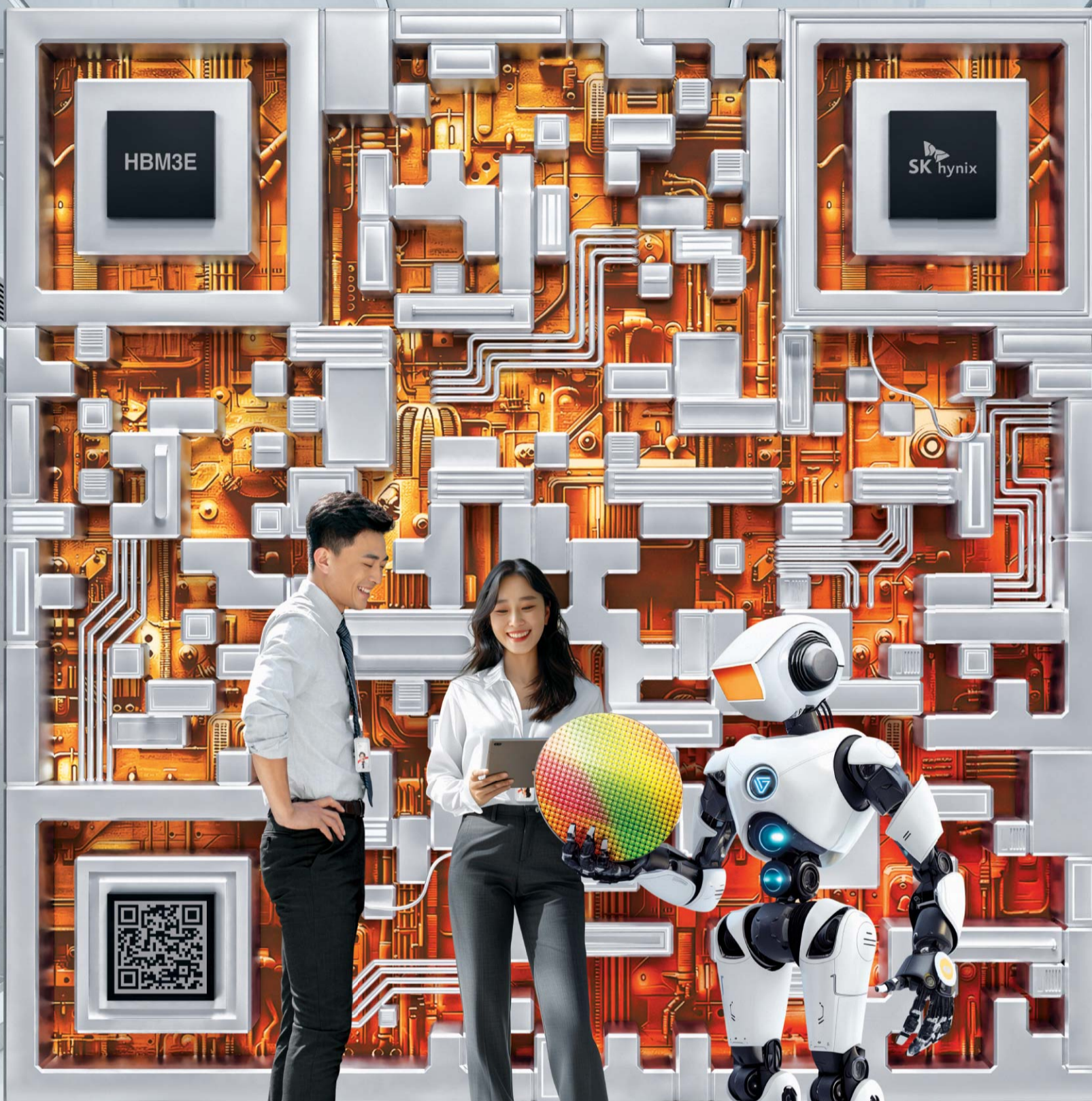


▲3년 안 KS 진출 목표…두산 이승엽 감독 “올해 할 수 있다”
/사진 뉴스시
▲이기흥 체육회장 3선 좌절…축구협회장 선거도 이번 나올까

▲재할 마친 이정후, 2월18일 MLB 스프링캠프 시작…김혜성은 2월16일
▲“한달 230억원 받는다”…재계약 임박한 호날두 연봉에 ‘깜짝’

▲프로농구 LG 타마요, 3라운드 MVP…아시아 쿼터 최초
▲소노 이정현, KBL 올스타전 부상 낙마…오세근 대체 선발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We Do Technology | SK hynix